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碩士學位論文

한·중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및 보완성 분석에 관한 연구

濟州大學校 大學院

貿 易 學 科

束 泓 波

2022年 0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중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및 보완성 분석에 관한 연구

指導敎授 홍 재 성

束 泓 波

이 論文을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22年 02月

束泓波의 經營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許允碩 ㊞

委 員 片建宇 ㊞

委 員 洪在式 ㊞

濟州大學校 大學院

2022年 02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South Korean an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Hong-Bo Shu
(Supervised by professor Jae-Sung Hong)

A thesis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 for the degree of Master of Business Administration

February. 2022.

This thesis has been examined and approved.

.....

.....

.....

February. 2022.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JEJU NATIONAL UNIVERSITY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 1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 4

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 ····· 5

제1절 선행연구 ····· 5

1. 한·중 농산물 무역 연구 ····· 5

2. 농산물 국제경쟁력 및 보완성 연구 ····· 10

제2절 한·중 무역 및 농산물 현황 ····· 14

1. 한·중 무역의 현황 ····· 14

2.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 16

제3절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의 이론적 분석 ····· 25

1. 국제 경쟁적 이론 분석 ····· 25

2. 농산물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26

3. 무역 보완성의 이론적 분석 ····· 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3 장 데이터 분석 및 범위 ····· 32

제1절 한·중 농산물 국제 경쟁력의 분석 방법 ····· 32

제2절 한·중 농산물 보완성 관계의 분석 방법 ····· 35

제3절 데이터 범위 ····· 37

제 4 장 데이터 분석 결과와 무역 활성화 방안 ····· 39

제1절 한·중 농산물 국제 경쟁력 분석 ····· 39

제2절 한·중 농산물 보완성관계의 분석 ····· 48

제3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활성화 방안 ····· 53

제 5 장 결론 ····· 61

참고문헌 ····· 63

Abstract ····· 6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표 차 례 >

<표 Ⅱ-1> 한·중 농산물 무역 연구의 선행연구의 검토 ····· 9
<표 Ⅱ-2> 농산물 국제경쟁력 및 보완성 연구의 선행연구의 검토 ····· 13
<표 Ⅱ-3> 2013-2019년 한국 농산물 무역액 및 증가율 ····· 17
<표 Ⅱ-4> 2013-2019년 중국 농산물 무역액 및 증가율 ····· 18
<표 Ⅱ-5> 2019년 중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상황 ····· 19
<표 Ⅱ-6> 중국산 농산물 수출 중 한국시장 비중 ····· 20
<표 Ⅱ-7> 한국산 농산물 수출 중 중국시장 비중 ····· 21
<표 Ⅱ-8> 한·중 농산물 무역액 ····· 22
<표 Ⅱ-9> 중국에 대한 (對韓) 농산물 수출액 ····· 23
<표 Ⅱ-10> 한국에 대 (對) 중국 농산물 수출액 ····· 24
<표 Ⅲ-1> 현시 비교우위지수의 품목분류 ····· 33
<표 Ⅲ-2> 무역 특화지수의 품목분류 ····· 35
<표 Ⅲ-3> 농산물의 HSN 코드 분류 ····· 38
<표 Ⅳ-1> 한·중 농산물 현시비교우위지수 ····· 39
<표 Ⅳ-2> 중국의 농산물 무역 RCA 지수 ····· 40
<표 Ⅳ-3> 한국의 농산물 무역 RCA 지수 ····· 43
<표 Ⅳ-4> 중국의 농산물 무역 특화지수 ····· 46
<표 Ⅳ-5> 한국의 농산물 무역 특화지수 ····· 47
<표 Ⅳ-6> 2013-2019년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농산물 무역 보완성 지수 ····· 49
<표 Ⅳ-7> 2013-2019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농산물 무역 보완성 지수 ····· 50
<표 Ⅳ-8> 한·중 농산물 산업 내 무역지수 ····· 51

〈 그 림 차 례 〉

[그림 Ⅱ-1] 한·중 무역 총액 및 동기대비 증가속도 ····· 14
[그림 Ⅱ-2] 한·중 수출입액 및 수출- 수입 대비 ····· 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1 장 서 론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경제는 세계화와 함께 지역경제 통합으로 가는 추세다. 국가·지역 간 경제 연계가 긴밀해지고, 지역마다 지역경제통합기구가 만들어져 자국의 경제 발전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보호무역주의 색채가 어느 정도 반영된 국가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국가 간 무역은 상호 보완적이지만 강력한 경쟁 관계도 존재한다. 이 글은 한국과 중국 두 아시아국가의 농산물 무역의 경쟁 및 보완성을 분석한다.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가까워 예나 지금이나 긴밀한 정치·경제·외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교류는 40여 년간 단절됐다. 한·중 간 경제협력은 1992년 두 나라 정부와 인민의 노력으로 외교 관계를 재정립하면서 급성장 했다. 현재 한·중 양국은 공산품과 농산물 등 전 분야에서 무역액이 빠르게 늘고 있고, 경제 교류는 물론 문화 교류도 늘고 있다. 양국은 이미 중요한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한·중 간 정치·외교 관계도 가까워지고 있다. 1992년 수교 이후 1998년 한·중 관계가 21세기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했고, 2003년 전면적 협력동반자 관계로 발전해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한·중 양국의 무역이 점차 늘고 있어 현재 한국은 중국의 3위 무역 상대국이자 2위 수입 상대국, 3위 수출시장이다. 동시에 중국은 이미 한국의 최대 무역국이자 최대 투자대상국이다. 1992년 외교 관계 수립 이후 한·중 경제무역 협력이 발전한 상황에서 양국의 무역수지 분석을 통해 한국은 전체 무역에서, 중국은 농산물 무역에서 흑자를 기록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농산물 생산 및 소비 대국이자 농산물 주요 수출국 중 하나다. 한·중 양국의 농산물 생산은 농가 소득과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영향이 크다. 한·중 농산물 무역액은 1992년 10억2000만 달러에서 1997년 13억7000만 달러로 늘었고, 2003년에는 처음으로 두 나라의 농산물 무역액이 20억 달러를 넘어 27억8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1992-2019년 양국 농산물 무역액은 10억2000만 달러에서 54억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000만 달러로 5.3배 증가했다[1].

한국 국토 면적의 4분의 3 가까이가 산지이고, 여전히 농업은 가족이 경영하는 영세농가에 의해 운영되는 곳이 지배적이며, 농업 포기 현상, 고르지 못한 도시-농촌 개발, 소득 격차 확대로 농업과 농촌 개발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중국의 농업 생산력 수준이 끊임없이 향상되고 발전함에 따라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도 부단히 강화되고 있으며, 농산물도 세계 시장에서 비교우위와 일정한 지위를 가지기 시작했다[2]. 농산물의 수출은 농업·농촌·농민 등 3 농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 농촌의 노동력 고용을 해결하며, 농민 수의 증가를 촉진하고 농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국제 무역이 발전함에 따라, 각국은 자국의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적인 무역장벽 혹은 비 기술적인 무역장벽을 활용하기 때문에, 국제 농산물 시장에서는 농산물 무역 문제가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중 양국은 지리적 인접성, 유교권 문화, 우호적인 분위기, 식습관 및 소비습관 등에서 유사성이 많아 농업 분야에 있어 보완성을 갖게 됐다. 중국의 풍부한 자원, 거대한 투자시장, 값싼 노동력이 한·중 간 농산물 무역으로 양국의 농업환경이 크게 개선되면서 농업 생산력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다. 양국의 경제적 상호의존도가 양국 경제의 부단한 발전을 촉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중 양국 간 농산물 무역을 더욱 촉진하고, 농산물 무역 촉진 방안에 관한 연구도 서둘러야 한다.

한·중 간 지리적 위치 때문에 문화적 유사성이 있고, 특히 음식문화와 소비 관념이 매우 유사하다. 이 때문에 농업생산에서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한다. 또 노동력·자원·산업구조 측면에서도 보완성이 강하다. 현재 한국의 농업은 여러 방면에서 현대화되고 있으며 연구 수준과 국가적인 지원도 선진국 수준이다. 중국의 경우 광활한 토지와 온화한 기후로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가격경쟁력도 있다. 따라서 한·중 양국의 농업 분야 협력 강화는 양국의 농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그러나 농업자원이 부족해 농산물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수입에 있어 보호무역 정책을 펴면서 한·중 간 통상 마찰도 심화할 것으로 보인다.

1) 金美麗, 楊天, 李爽, 「中韓農産品貿易的制約因素及對策」, 對外經貿, 2016, pp.21-22.
2) 張溪, 厲英珍, 「中韓農産品出口競爭性与互補性研究」, 現代商貿工業, 2016, pp.48-5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중 양국은 무역, 기술협력, 문화 교류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교류도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각종 경제 교류와 경제 협력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한·중 무역 관계에 비해 농산물 쪽의 무역 증가속도는 더딘 편이다.

2015년 12월 발효된 한·중 FTA에는 양국 농산물 무역 발전을 위한 관련 조항이 포함됐다. 2019년 말 이후 한·중 양국은 '한·중 경제무역 협력계획 2021-2025'의 편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중 자유무역협정 2단계 협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한국의 중국 농산물 수입 무역에 대한 관세 인하 약속과 비관세 무역 조치에 대한 철폐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무역협력에 도움이 될 것이며, 양국 농산물 무역을 새로운 빠른 발전 단계로 끌어올릴 것이다. 한·중 농산물 무역 상품 구조상 현재 한·중 농산물 수출 구조에 과도한 집중 등이 한·중 농산물 무역에 어느 정도 걸림돌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중 농산물 무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 농산물 무역의 현주소와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을 분석하여 한·중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기 위한 대책을 제안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전반적인 연구 아이디어와 방법에 이론과 실증을 접목해서 한·중 농산물 무역의 규모와 구조를 실제 데이터와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양국의 수입수출 현황을 분석하고 한국농산물과 중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을 검토한다. 농산물은 HS 코드 2부의 식물성 생산품과 4부의 생산품 가운데 관련이 있는 제6류-제14류, 제17류-제24류를 대상으로 분석한다.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은 현지 비교우위지수, 무역 특화지수, 무역 보완성 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등을 활용해 비교·분석하는 방법으로 전개한다. 또 기존 문헌과 보고서를 참고하고 UN Comtrade 의 연도별 통계연감, 한국무역협회, 한국통계청, 한국 농림부, 중국 상무부, 중국 농림부, 중국 관세청 등의 통계를 활용하기로 했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의의를 밝히고, 논문의 연구 아이디어와 내용을 밝히는 한편, 관련된 연구 상황에 대해 논한다.

제2장에서는 전반적인 한·중 무역 현황을 분석해 데이터를 근거로 양국의 농산물 무역 현황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비교우위 이론, 절대 우위 이론, 산업 내 무역 이론 등에 관한 국제 무역 이론을 열거·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현지 비교우위지수(RCA), 무역 특화지수(TSI), 무역 보완성 지수(TCI), 산업 내 무역지수(GLI)를 선택해서 한·중 농산물 무역을 분석하고, 데이터의 범위와 출처를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한·중 농산물 무역에 관한 데이터를 지수 공식에 담아 한·중 농산물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을 분석한 결과를 설명하고, 그 결과를 결합해 중국과 한국에 농산물 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여 결론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2 장 선행연구와 이론적 분석

제1절 선행연구

1. 한·중 농산물 무역 연구

학흔(2014)[3]은 한-중 농산물 무역협력, 양국의 농산물 무역 조율이 지속해서 발전하고 양국이 상호호혜(Win-Win) 하는 방안을 분석했다.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위주로 양국 간 무역 현황 정책을 분석해 통상 마찰을 방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한·중 농산물 무역의 제약 요인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 중국과 한국의 무역통계를 활용해 양국의 농산물 수출 비교우위 변동 상황을 분석하고, 중국의 한국농산물 수출 문제를 분석해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촉진 방안을 제시한다.

주흠(2013)[4]은 2015년의 무역 액수를 3,000억 달러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중국 양국의 무역에 있어서, 특히 민감한 품목에 해당하는 농산물 품목의 무역의 마찰을 줄이고 협력을 통하여 무역을 촉진함으로써 양국의 교역 확대 방안에 관한 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 이러한 점을 인식하여 최근에 이르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현황과 정책, 양국의 농산물교역 현황 및 양국 농산물 교역의 확대 발전상의 장애 요인, 그리고 한·중 FTA 농업협상의 주요쟁점 등을 차례로 살펴본 후 향후 체결될 한·중 FTA를 통한 농산물교역 확대 방안을 제시하는데 궁극직인 목적을 두고 있다.

류문붕(2014)[5]은 산업 내 무역 지수를 이용 하여 한·중 양국 간 산업 내 무역에 대해 실증·분석하고, 이에 따라 양국 농산물 무역에서 존재하는 문제점 제기하고, 양국의 농산물 산업 내 무역에 대한 촉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한곤(2013)[6]은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현황과 무역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한중 FTA

3) 학흔, 「한국과 중국 농산물의 무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4.
4) 주흠, 「한·중 농산물 무역현황과 무역확대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5) 류문붕, 「한중 농산물 산업내무역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로 인한 양국 농업 분야의 영향은 대단히 크다.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한중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경우 중국 내에서 확립되지 못한 국내 농업생산체계를 오히려 확립시킬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바탕으로 한국농업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최아림(2013)[7]은 한중 농산물 무역 관계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여, 그 대응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한중 양국의 농산품 무역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한중 양국의 농산품 무역을 활성화하고 증대시키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王元彬, 鄭學党(2014)[8]는 1990-2013년 UN Comrade에 따르면 시장점유율 모델을 고정하고 시장수요 유발 효과, 경쟁력 효과, 수출 구조 효과 등 3가지 효과로 한중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하는 한편 다른 측면에서 양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白懿鱗(2013)[9]는 현대 농산물 무역의 이론적 전제조건을 흡수 보완하는 데 있어 중국과 한국 간 농산물 수입 강화, 수출 무역의 발전이라는 전략, 이론적 연구와 경제 통합, 표준 건설, 제도 건설 등 네 가지 측면에서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崔明旭(2013)[10]는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과 특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에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과 관련한 문제점과 양측 농산물 무역의 폐해를 조사해서 한·중 농산물 무역 개선을 위한 의견을 제시한다.

山世英(2013)[11]는 한·중 농산물 무역의 발전상을 연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한·중 농산물 모두 우위에 있고 상호보완성이 큰 편이지만 양국 무역의 경쟁도 커지고 있다. 중국은 자본 집약적·기술집약적 산업에서 경쟁력이 크게 강화돼 한국산 농산물과 경쟁하고 있다. 아울러 중국은 산업의 세대교체 촉진, 산업구조 최

6) 한곤, 「한·중 농업구조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2013.
7) 최아림, 「중국의 한국 농산물 수출 무역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3.
8) 王元彬, 鄭學党, 「中韓農産品貿易增長特質及影響因素研究」, 國際貿易問題, 2014, pp.88-98.
9) 白懿鱗, 「中韓農産品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哈爾濱師范大學, 2013.
10) 崔明旭,「關于中韓農産品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吉林大學, 2013.
11) 山世英,「中韓貿易的互補性与競爭性分析」, 中國商論, 2013, pp.129-13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적화, 수출품의 질적 향상, 산업 구조조정 등을 서둘러 농산물 국제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해야 한다.

王莉, 王國强(2012)[12]는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을 중국 세관 데이터베이스(DB)로 조사해 산업 내 무역구조지수와 산업 내 무역지수를 산출했다. 조사 결과 한·중은 수산물·채소·과일·식량 제품 곡물 등을 수출하고, 수입은 설탕·수산물 등의 제품으로, 한·중 양국은 농산물 무역의 상호보완성이 강한 산업 간 무역을 주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元雯(2010)[13]는 비교우위 이론 등 국제무역이론을 바탕으로 일련의 지수 분석과 계산을 통해 중국 농산물의 비교우위와 그 변화 추이를 분석, 중국의 대한농산물 수출에 큰 여력이 있음을 검증한다. 한국은 농업에 대해 과잉보호 정책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도 세계에서 농산물 시장에 대해 가장 개방하지 않는 국가 중의 하나가 되었다. 일련의 관세 조치와 기술 표준, 안전 위생 조치 등 비관세 조치와 한국인의 '신토불이(身土不二)'라는 전통적 인식은 중국에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을 제약하는 요인이 됐다. 반면 중국의 농업은 오랫동안 "마이너스 보호" 상태에 처해 있는 데다, 게다가 중국 농산물 자체에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들이 중한 농산물 무역의 건강한 발전에 영향을 주었다.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출 무역이 존재하는 우위와 일련의 문제에 대하여, 상응하는 대책을 제정하여,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확대하며, 중한 농산물 무역의 지속, 건강, 안정적 발전을 촉진할 것을 건의한다.

章輝(2009)[14]는 한·중 농산물 무역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추가 조사를 통해 향후 무역분쟁에 대한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

윤형호(2010)[15]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산업 내 교역구조의 변화를 경제사적으로 분석 평가함으로써 양국 간 교역의 보완 관계와 경합 관계의 변화 추이를 명확하게 하여 한·중 농산물 교역구조의 발전적 변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데 목적이다.

12) 王莉,田國强.「中韓農産品貿易現狀及互補性分析」, 世界農業, 2012, pp.47-51.
13) 元雯, 「中國對韓農産品出口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0.
14) 章輝, 「關于中韓農産品貿易爭端的分析及啓示」, 商業時代, 2009, pp.33-34.
15) 윤형호, 「한.중농산물교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설매(2013)[16]는 한·중 FTA 체결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인 농산물교역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최근 3년간 한국의 대(對) 중국 농산물 수출입 동향 통계를 MTI를 기준으로 삼아 HS(6단위) 분류 연계 방식으로 경쟁력 있는 품목을 찾아내어 현황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선행연구 분석과 통계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를 도출하고 연구 모형을 설계하며 가설을 설정하여 이를 검증한다.

왕아정(2019)[17]은 농산물 무역과 FTA에 관한 이론을 연구하고 한중 FTA 연구 분석을 통해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의 경쟁성과 상호보완성을 입증하고 한중 FTA의 타당성을 입증했다.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교역을 늘리고 상호 의존을 강화하며, 양국의 무역 자유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쌍방은 한중 FTA를 체결하였다. 본 논문은 한중 FTA 체결을 배경으로 한중 농산물 생산구조와 농산물 무역의 변화 추진을 연구하여 무역 자유화가 한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을 입증하였다.

16) 한설매, 「한·중 FTA 체결이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17) 왕아정, 「한·중 FTA가 한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Ⅱ-1> 한·중 농산물 무역 연구의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자(년도)	제목	내용
학흔(2014)	한국과 중국 농산물의 무역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 중국의 한국농산물 수출 문제를 분석해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촉진 방안을 제시함.
주흠(2013)	한·중 농산물 무역현황과 무역확대방안	- 한국과 중국의 농업 현황과 정책을 점검하고 한중 FTA를 통한 양국 농산물 무역 확대방안을 제시함.
류문붕(2014)	한중 농산물 산업내무역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중국 간의 산업 내 무역을 분석하여 양국 농산물 산업의 대내 무역 촉진 전략을 제시함.
한곤(2013)	한·중 농업구조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 한·중 양국의 농업구조와 무역환경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에 대한 대안을 검토했고 제시함.
최아림(2013)	중국의 한국 농산물 수출 무역에 관한 연구	- 한·중 농산물 무역 관계 및 문제점을 분석해서 한·중 농산물 무역의 증가 방법을 제시함.
王元彬, 鄭學黨(2014)	中韓農産品貿易增長特質及影響因素研究	- 고정시장 점유율 모델을 통해 한·중 농산물 무역을 촉진하는 주요 요인을 분석했고 제시함.
白懿鱗(2013)	中韓農産品貿易問題研究	- 현대 농산물 무역 이론에 기초해 한·중 양국 간 농산물 수출입 무역을 가속화 할 방법을 제시함.
山世英(2013)	中韓貿易的互補性与競爭性分析	- 한·중 농산물 무역의 발전상을 연구해 중국의 산업 고도화와 산업구조 최적화가 시급하다는 결론을 제시함.
王莉, 王國强(2012)	中韓農産品貿易現狀及互補性分析	- 중국 세관 데이터 분석을 통해 한·중 농산물 무역은 상호보완성이 강하다는 점을 제시함.
元雯(2010)	中國對韓農産品出口貿易問題研究	- 중국이 한국에 농산물을 수출하는 데 따른 장단점에 대한 대응책을 제시함.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농산물 국제경쟁력 및 보완성 연구

CHIEWNAWIN SUWANNEE(2018)[18]는 중국과 태국의 농산물 무역 비교 우위 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무역 강도 지수를 통해 무역 경쟁 및 보완성을 계산한다. 분석 결과 중국과 태국의 농산물 무역은 경쟁적으로 보완성이 공존하지만, 보완성이 경쟁성에 비해 다소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태국은 무역의 안정적 발전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무역장벽을 줄이고 관세를 인하함으로써 상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극적인 조처를 해야 한다.

龔志超(2014)[19]는 도표분석법, 재료 귀납법을 통해 중국과 아세안의 농산물 무역실태 분석, 요소부여이론, 경쟁우위 이론, 비교우위이론은 이론적 기반으로 무역 보완성 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경쟁지수를 결합해 중국과 아세안의 농산물 무역 경쟁 및 보완적으로 분석한다.

晏琼(2013)[20]은 실증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결합해 이론적 분석뿐 아니라 최신 이론 데이터와 무역지수를 인용해 중국과 네덜란드의 무역 상황을 정밀 분석한다. 우선 경쟁성과 보완성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추후 실증적 분석의 토대를 마련했다. 이어 중국과 네덜란드의 농산물 무역 현황을 분석하는 한편 정성 분석을 통해 양국 농산물 무역 향방에 영향을 미칠 유불리를 찾아냈다. 마지막으로 무역 결합도, 무역상호봉완성지수, 현저한 비교우위지수를 통해 양국의 농산물 무역 경쟁 및 보완성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한편 양국 간 무역마찰에 어떻게 대응하고 무역 상호보완을 촉진하기 위한 적극적인 건설의견을 제시한다.

王晶明(2013)[21]은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으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어 중국과 인도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농업 국가로 부상했다. 두 나라 모두 급속한 경제성장을 하면서도 농업을 경시하지 않고, 반대로 농업을 발전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양국 간 농산물 무역을 발전시켜 각자의 장점을 살리고 무역의 보완을 효과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 따라서 양국 농산물 무역 확대는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수준을 높일 뿐 아니라 선진국 농산물 교역 의존도를

18) CHIEWNAWIN SUWANNE, 「泰中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中國碩士學位論文 吉林大學, 2020.
19) 龔志超, 「中國-東盟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中國碩士學位論文 云南財經大學, 2014.
20) 晏琼, 「中國和荷蘭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華中師范大學, 2013.
21) 王晶明, 「中印農産品貿易互補性与競爭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遼宁大學,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줄여 농산물 교역 상대국의 과도한 집중에 따른 위험을 줄일 수 있다. 이 글은 중국과 인도의 농산물 무역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경쟁 및 보완성의 두 가지 측면에서 양국의 현재 농산물 무역에 존재하는 일련의 문제들을 분석한다.

阮氏秋江(2009)[22]는 중국과 베트남의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고, 중국과 베트남의 농산물 무역 경쟁 및 보완성, 수출 유사도 지수 도입, 현시적 비교우위 지수로 중 베트남 농산물 무역의 개발도상국 내 경쟁력과 선호도를 분석하며, 한계산업 내 무역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무역 상호성 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무역 강도 지수 등을 사용하여 양국 농산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분석한다.

郝曉燕, 韓一軍, 姜楠(2017)[23]는 한·중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한 뒤 각종 지수를 통해 한·중 농산물 무역의 경쟁 및 보완적 관계를 분석해 경쟁적이고 보완적인 결론을 도출한다.

張溪, 厲英珍(2016)[24]는 현시비교우위지수, 무역 보완성 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3개 지표로 중한 농산물 무역의 경쟁 및 보완성을 분석한다. 결론적으로 한중 농산물 수출의 경쟁력은 약하고 중국 농산물의 평균 경쟁력은 한국보다 높다는 것이다.

류승범(2015)[25]은 한·중 농업 현황과 농산물 무역 현황을 살펴 한·중 양국 간 농산물 무역 정책과 국제 경쟁력을 비교 분석했다. 또 양국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양국 농산물 무역 증대를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학성룡(2014)[26]은 한 · 중 농업 현황 및 농산물 무역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고, 한·중 양국 간에 농산물 무역의 정책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그리고 양국의 농산물 무역에 대한 문제점을 찾고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대하여 실측적인 관계 데이터를 통하여 농산물 무역의 증대, 활성화에 관한 대안을 제시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王虹(2013)[27]은 주로 한 · 중 양국 농업의 현황과 무역구조를 설명하고, 한국과

22) 阮氏秋江, 「中越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湖南大學, 2009.
23) 郝曉燕, 韓一軍, 姜楠, 「中韓農産品貿易互競互補性研究」, 世界農業, 2017, pp.38-45.
24) 張溪, 厲英珍, 「中韓農産品出口競爭性与互補性研究」, 現代商貿工業, 2016, pp.48-50.
25) 류승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5.
26) 학성룡, 「한· 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4.
27) 王虹, 「한국과 중국 농산물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국 농산물의 생산량, 수출 입양, 무역 현황을 데이터로 비교 분석하며, 한 · 중 양국 간의 수출경합도 지수, 무역특화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를 통해서 양국 농산물 무역의 국제적인 경쟁력을 비교 분석한다. 동시에 양국의 무역 활성화에 대한 실증연구는 데이터를 이용해 회귀분석하고 양국 농산물 무역 활성화에 대한 대안을 제시할 것이다.

풍언걸(2010)[28]은 주로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중국의 경제와 갈수록 한·주 양국 간 강화되고 있는 상호 의존성이 한·중 농산물교역에 주는 영향을 다루며, 한·중 양국 각각의 농업 생산구조와 농산물 시장현황 및 무역구조를 살펴보고 나서, 한·중 농산물 무역 변화와 경쟁력을 비교하며, 한·중 쌍방은 상호 이익에 근거해서 농산물 무역의 협력 및 확대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향몽림(2020)[29]은 전 세계 농업 발전 구조의 깊이 조정하에 많은 국가가 농업협력을 하고 농업 경제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 발전의 수요를 실현해야 하는 정책 환경에서 중국-아세안 농산물 무역의 협력이 가속화되고 협력의 정도가 심화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여러 가지 불리한 요소들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는 모두 중국-아세안 농산물의 무역구조에 영향을 미쳐 중국과 아세안의 서로 다른 농산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중국-아세안 농산물교역의 상호보완성 제고가 쌍무 농산물 교역 확대에 도움이 되고 일대일로의 발전 배경을 고려하여 이러한 대환경이 중국-아세안 농산물교역의 상호보완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더 깊이 이해하였다.

28) 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0.
29) 향몽림,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아세안 농산물무역보완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Ⅱ-2> 농산물 국제경쟁력 및 보완성 연구의 선행연구의 검토

연구자(년도)	제목	연구내용
CHIEWNAWIN SUWANNEE(2018)	泰中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 실제 데이터와 관련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과 태국의 농산물 무역 상황을 세밀하게 분석함.
龔志超(2014)	中國-東盟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 이론적 기초와 데이터를 활용해 중국과 아세안의 농산물 무역 경쟁 및 상호보완을 정량적으로 분석함.
晏琼(2013)	中國和荷蘭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 실증적 분석과 이론적 분석을 결합해 중국과 네덜란드의 농산물 무역 현황을 분석함.
王虹(2013)	한국과 중국 농산물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 한·중 양국의 농업구조와 무역구조를 설명하고 양국 농산물 무역 활성화 대책을 제시함.
학성룡(2014)	한· 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 한-중의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을 분석해 한중 FTA가 양국에 가장 민감한 농업 부문의 전망을 전망함.
류승범(2015)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한·중 간 농산물 무역 정책과 국제 경쟁력을 비교 분석해 양국 농산물 무역 증대 대책을 제시함.
張溪, 厲英珍(2016)	中韓農産品出口競爭性与互補性研究	- 한·중 농산물 무역의 경쟁성과 상호보완성을 분석해 한국농산물의 무역 경쟁력을 촉진하는 방법을 제시함.
郝曉燕, 韓一軍, 姜楠(2017)	中韓農産品貿易互競互補性研究	- 한·중 농산물 무역의 현황과 구조적 특징을 분석해 경쟁적이고 상호 보완적이라는 결론을 내리함.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연구 방향은 한·중 간 농산물 무역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다. 연구기법은 이론분석과 실증분석을 결합해 기존 연구와 달리 현시비교우위지수(RCA)와 무역 보완성 지수(TCI)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무역특화지수(TSI)와 산업내 무역지수(GLI)가 한·중 양국 무역농산물의 연관지수를 다르게 적용해 양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 정도를 분석한 결과 경쟁적이고 보완적인 농산물류가 존재하고 국제무역이론에 따라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해냈다. 논문은 마지막으로 실증분석을 토대로 현재 양국 농산물 무역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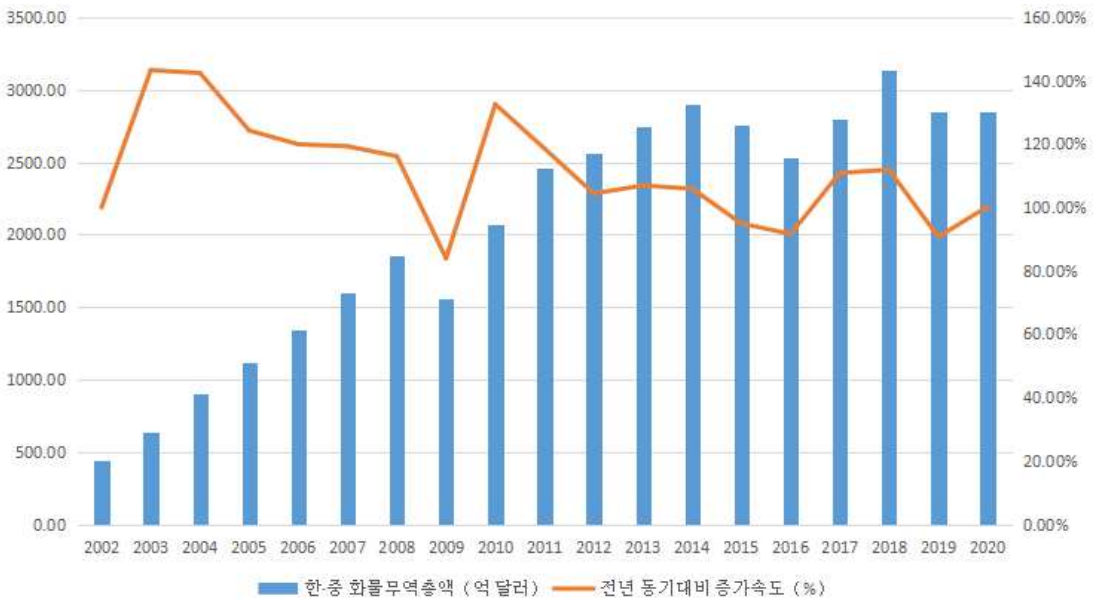
제2절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 구조

1. 한·중 무역의 현황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여러 요소들이 서로 보완되는 등 농산물 무역이 오랜 역사를 갖고 있다. 그러나 정치 등의 영향으로 농산물 무역이 중단됐던 한국과 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무역이 재개됐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후, 중한 양국의 농산물 무역은 빠른 발전 단계에 진입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2020년까지 17년 연속 한국의 최대 무역 협력 국가가 되었다. 한·중 양국 간 무역이 빠르게 늘고 수출입 품목이 늘어났다.

[그림 Ⅱ-1] 한·중 무역 총액 및 동기대비 증가속도

(단위: 억 달러)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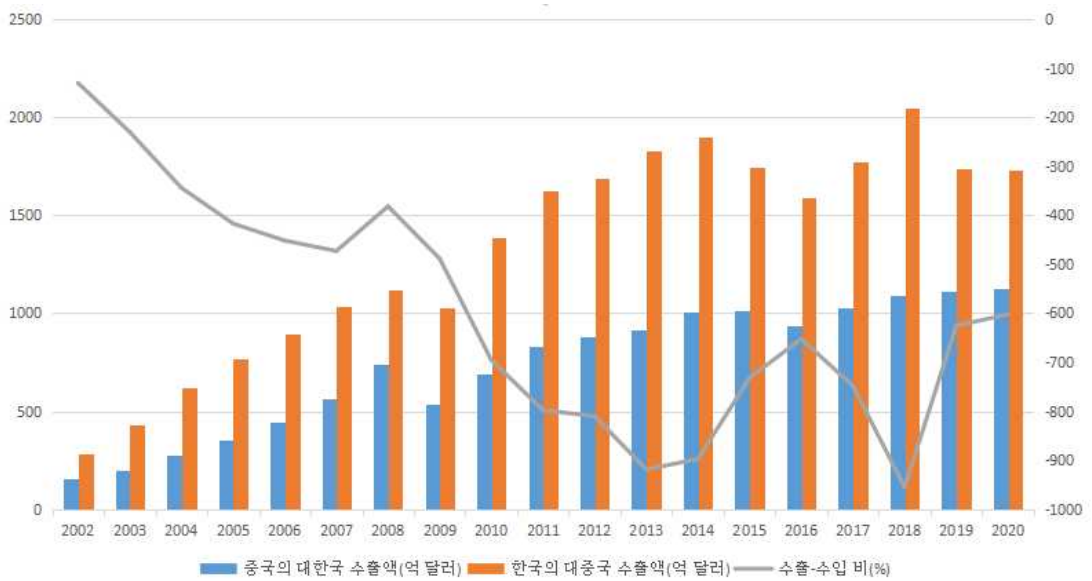
[그림 Ⅱ-1]에서 볼 수 있듯이 2003년부터 2020년까지 한·중 무역 총액은 전체적으로 증가세다. 하지만 한·중 무역액은 두 가지 뚜렷한 감소세를 보였다. 하나는 2009년이다. 글로벌 경제위기로 인한 경제 침체가 한·중 무역의 증가로 이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져 무역액이 감소하고 있다. 또 다른 현저한 하락은 2015년에 있는데, 주로 국제 시장의 수요 부진으로 대량의 상품 가격이 하락한 데 기인한다. 또 2015년과 2016년에는 중국의 성장 둔화로 미국 측의 협조를 받아 사드(THAAD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를 공동 배치해 한중 관계가 긴장하면서 무역액이 크게 줄었다. 또 양국은 양국의 경제구조를 조정하여 무역의 단기적인 수요 구조를 변화시켰다. 2016년 이후 한·중 무역액은 감소세로 돌아섰고 2017-2018년 한·중 무역액은 빠르게 반등했다. 2019년과 2020년은 한·중 경제 발전 조정의 영향으로,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 19 여파로 한·중 무역 총액이 감소했다. 하지만 한·중 간 각각의 감염이 통제되고 백신이 등장하면서 2021년 한·중 간 무역 거래는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게 됐다.

[그림 Ⅱ-2] 한·중 수출입액 및 수출- 수입 대비

(단위: 억 달러)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그림 Ⅱ-2]에서 볼 수 있듯이 우선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꾸준히 증가해 왔고 2015년 이후 정치적 영향으로 잠깐 하락했지만 한·중 FTA 체결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2019년과 2020년 사이에는 안정세로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접어들었다. 그리고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역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지속해서 증가했으며, 2008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으나 양국의 무역에는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 중국은 2002년부터 2020년까지 한국을 대상으로 한 무역에서 지속적인 무역적자를 보이고 있고, 최근 몇 년간 적자 폭이 축소되는 추세였지만 이 중 2018년 무역적자액은 사상 최대인 955억3800만 달러로 집계됐다. 현재 추세로 볼 때 한·중 양국의 무역에서는 한국의 수출이 더 많은 상황이다.

2. 한·중 농산물 무역 현황

1) 한국농산물 무역 개황

한국은 세계 7위의 무역 대국으로 농산물 무역량이 줄곧 매우 많다. 하지만 농업 경제 발전과 국민경제 발전은 전반적으로 부조화돼 있다. 그동안 한국농산물의 생산은 주로 정부 지원과 국가 보호에 의존해 왔다. 한국농산물 시장에서는 쌀·원예작물·축산물 등 몇 가지 농산물만 자급된다. 주요 수출 농산물은 채소와 꽃의 한국 시장점유율은 일본 장미는 약 50%로 미국 판매는 주로 과일이다. 가축양식업을 보장하기 위해 밀가루 가공업과 방직, 의류와 가죽제품 제조 등의 수출을 위해서는 사료, 콩, 밀, 면화, 가죽 등 원자재를 모두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통계에 따르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2012년까지 한국의 농산물 수입액은 52억 달러에서 236억 달러로 연평균 11% 이상 늘었다. 또 한국의 농산물 수출액이 26억 달러에서 63억 달러로 늘었고, 그중에서도 커피, 차, 코코아, 향신료 및 동제품과 음료 수출액이 가장 빠르게 증가했다[30].

30) 元雯, 「中國對韓農産品出口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Ⅱ-3> 2013-2019년 한국농산물 무역액 및 증가율

(단위: 천 달러)

연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2013	6,191,610	-3.02%	23,952,317	1.32%	30,143,927	0.40%
2014	6,512,065	5.18%	25,546,027	6.65%	32,058,092	6.35%
2015	6,428,721	-1.28%	24,772,212	-3.03%	31,200,933	-2.67%
2016	6,942,215	0.56%	24,911,042	6.85%	31,853,257	2.09%
2017	7,418,068	6.85%	27,053,565	8.60%	34,471,633	8.22%
2018	7,536,671	1.60%	29,936,885	10.66%	37,473,556	8.71%
2019	7,847,011	4.12%	29,922,303	-0.05%	37,769,314	0.79%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Ⅱ-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농산물 무역 총액은 최근 7년간 증가세를 이어갔고, 수출입액으로 따지면 수입액이 연간 3%씩 증가하면서 수출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한국의 농산물 무역 적자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국산 농산물의 구조조정에 따른 토지 밀집형 농산물의 출현도 눈에 띈다. 한국산 농산물의 수출입액은 따라서 줄어들 것이다. 한국 대외 무역에서 농산물이 차지하는 위상은 그동안 대외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한국 정부와 농민은 농산물의 품질 향상과 구조적 개선을 통해 더 높은 경제적 효과와 농산물 무역의 세계 시장 진입을 꾀해 온 것으로 보인다.

2) 중국 농산물 무역 개황

중국은 예로부터 농업 대국이며 농업은 중국의 입국 근본이며, 농산물의 경영과 무역은 광대한 중국 농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으며, 자신의 이익과 가장 관련되어 있다. 농민의 가계 소득, 사회의 조화와 안정, 나아가 국가 경제의 근본 보장은 모두 농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예나 지금이나 중국 정부가 농업을 중시하고, 2000년대 들어 농산물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해 왔고, 그 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 농업을 발전시키려고 노력해 왔으며, 그 결과 농산물의 무역 규모가 매년 증가해 왔다.

통계에 따르면 1994-2012년에는 중국의 농산물 무역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기간으로 무역 총액은 258억 달러에서 약 600억 달러로 연평균 6% 이상 증가했다. 특히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 무역 깊이와 폭이 크게 늘었고, 농산물 무역 총액도 크게 늘었다[31].

<표 Ⅱ-4> 2013-2019년 중국 농산물 무역액 및 증가율

(단위: 억 달러)

연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총액	증가율
2013	678.3	7.2%	1188.7	5.7%	1866.9	6.2%
2014	719.6	6.1%	1225.4	3.1%	1945.0	4.2%
2015	706.8	-1.8%	1168.8	-4.6%	1875.6	-3.6%
2016	729.9	3.3%	1115.7	-4.5%	1845.6	-1.6%
2017	755.3	3.5%	1258.6	12.8%	2013.9	9.1%
2018	797.1	5.5%	1371.0	8.9%	2168.1	7.7%
2019	791.0	1.7%	1509.7	10.0%	2300.7	5.7%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Ⅱ-4>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무역 총액은 최근 7년간 증가세를 이어가며 2013년부터 2019년까지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등 중국 대외 무역에서 농산물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수출입 물량을 보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2013년과 2014년 2년을 제외하고 6%를 밑도는 등 완만하고 안정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은 크게 늘었지만 2013년과 2014년, 2015년과 2016년엔 다소 낮은 수준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간 9%가 넘는 성장세를 유지했다. 특히 중국의 농산물 무역 적자가 지속하고 적자 폭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연간 적자 총액이 200억 달러 이상 늘어난 것은 중국 농산물의 수요가 자국 생산과 맞지 않고 해외 농산물에 대한 의존도가 있음을

31) 鄧莹, 「中韓産業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 주된 이유는 주로 다음과 같다. 첫째는 2000년대 들어 중국 경제의 성장과 도시화가 가속화되고 비농업 인구가 증가하면서 중국 시장의 수요가 매년 높아져 수입으로 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둘째는 국제 무역 마찰을 줄이기 위해 관련 농산물의 수입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셋째는 관세 인하다. 넷째, 중국의 농산물은 중국 시장의 수요와 일정한 차이가 있다. 일부 농산물은 국내 수요를 만족 시키기에는 생산량이 부족하며, 농산물의 품질에도 문제가 있다. 다섯 번째는 국제 농산물 가격이 최근 몇 년간 어느 정도 하락해 중국 시장에 충격을 줬다는 점이다.

농업은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넓은 영토와 값싼 노동력이 풍부한 중국은 농산물 분야에 있어 가장 경쟁력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중국이 거대한 국토 면적을 갖고 있음에도 농업용지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데다 중국의 도시화가 가속화되면서 농업용지가 축소되고 노동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노동집약적 산업인 농업의 경쟁우위가 약화 되는 측면도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은 줄어드는 노동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 농기계 등을 활용하여 단위 토지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 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표 Ⅱ-5> 2019년 중국산 농산물 품목별 수출입 상황

(단위: 억 달러)

품목별	수출액	증가율	수입액	증가율
곡물	12.8	15.6%	52.6	-11.5%
목화	-	-	36	12.6
설탕	-	-	11.2	9%
식용유씨	116	-3%	384	-8%
식물성 기름	26.8	-9.6%	74.1	26.4%
채소	9.6	15.9%	155	1.7%
과일	103.6	23.2%	74.5	4.1%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Ⅱ-5>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2019년 주요 농산물 수입은 곡물, 식용유 종자, 채소, 축산물, 수산물로 각각 52억6000만 달러, 384억 달러, 362억 달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6억 달러였다. 전체 수입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이런 형태의 농산물은 전형적으로 중국이 뚜렷한 우위나 심지어 때에 따라서는 비교우위가 없는 땅 집약적인 상품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의 주요 농산물 수출액은 과일·수산물이었는데, 두 품목 모두 100억 달러를 넘어 각각 103억 달러, 187억 달러에 달했다. 이 두 종류의 농산물은 노동집약적이며 중국은 자원개발에 강한 이점을 가지고 있다. 종합해보면, 중국의 농산물 수출 구조는 그들이 차지하는 비교 가격 동향과 더 일치한다. 나아가 성장률 면에서도 중국의 채소·과일·수산물 수출은 증가율이 높고 경쟁우위가 있지만 식용유(수출은 마이너스 성장)와 축산물 수입은 증가율이 가장 높아 이 부문 중국의 시장수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중 양국 농산물 무역 개황

한·중 양국은 모두 아시아의 농산물 무역 대국인 데다 지리적 위치도 비교적 가까워 무역 편의를 위한 좋은 기초를 제공했다.

<표 Ⅱ-6> 중국산 농산물 수출 중 한국시장 비중

(단위: 억 달러)

연도	대 세계 수출액	대한국 수출액	대(對)한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013	653.66	37.97	5.81%
2014	693.62	38.87	5.60%
2015	681.66	35.07	5.14%
2016	711.33	36.58	5.14%
2017	735.83	36.55	4.97%
2018	775.45	40.83	5.27%
2019	769.89	39.68	5.15%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2013-2019년 중국산 농산물의 수출액은 653억 6600만 달러에서 769억8900만 달러로 1.17배 늘었다. 2013-2019년 중국 농산물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한국 수출 비중은 약간 흔들리긴 했지만 5% 이상을 유지했고 2019년에는 약 5.514%를 차지했다. 이 같은 분석을 통해 중국 농산물의 수출 시장은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오세아니아 등 여러 나라가 있지만, 중국 농산물 수출 시장에서 한국 시장이 높은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어 중국 농산물 무역에서 한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Ⅱ-7> 한국산 농산물 수출 중 중국시장 비중

(단위: 억 달러)

연도	대 세계 수출액	대중국 수출액	대(對)중국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
2013	70.11	11.47	16.36%
2014	72.46	11.02	15.21%
2015	70.69	11.55	16.34%
2016	75.88	12.87	16.96%
2017	80.48	11.63	14.45%
2018	81.65	12.86	15.75%
2019	85.09	14.71	17.29%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2013-2019년 한국 농산물의 수출액은 70억1100만 달러에서 85억900만 달러로 1.21배 늘었고, 이 가운데 중국 시장의 수출액은 11억4700만 달러에서 14억7100만 달러로 1.28배 증가했다. 또 2013-2019년 한국 농산물의 대중국 수출 비중은 15% 이상을 유지하며 증가세를 보였다. 그만큼 한국 농산물 수출에서 중국 시장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소비 잠재력이 커 무역 활성화가 촉진될 만한 시장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Ⅱ-8> 한·중 농산물 무역액

(단위: 억 달러)

연도	농산물무역총액	중국 대(對) 한국 농업 수출	한국 대(對) 중국 농업 수출
2013	49.44	37.97	11.47
2014	49.89	38.87	11.02
2015	46.62	35.07	11.55
2016	49.45	36.58	12.87
2017	48.18	36.55	11.63
2018	53.69	40.83	12.86
2019	54.39	39.68	14.71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Ⅱ-8>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 49억 달러였던 한·중 농산물 무역액은 2019년 54억 달러로 늘었다. 7년 새 한·중 농산물 무역액은 1.1배로 늘었다. 2015년과 2017년은 소폭 하락했지만, 나머지 해는 모두 오름세다. 또 중국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액도 2015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증가세다. 2013년 약 37억 달러였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액은 2019년 약 39억 달러로 늘었다. 중국의 대한(對韓)농산물 수출액은 연간 1.05배 증가했다. 또 한국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액을 보면 2013년 약 11억 달러에서 2019년 약 14억 달러로 늘었다. 7년 새 대중국 농산물 수출액은 1.27배로 늘었다. 2017년에는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해는 상승세를 보였다. <표Ⅱ-7> 통계를 보면 한·중 농산물 무역이 늘고, 양국 농산물이 서로 수출되는 추세로 한·중 농산물 무역이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중국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 구조 현황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이 한국에 수출한 농산물은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곡물(HS1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HS12), 채소·과실·견과류나 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HS23) 등이 주요 품목이다.

<표 Ⅱ-9> 중국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단위: 천 달러)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28069	37313	47027	47916	45183	49465	52799
07	509199	474850	544839	572027	525572	535473	504561
08	51592	42745	39223	43042	38646	44121	42638
09	25775	24641	26823	26868	17986	26624	33201
10	300211	201837	170705	163207	133702	130170	136881
11	39487	38910	36706	35627	44795	52280	52050
12	342979	360802	294800	266350	286814	302418	329012
13	50595	49660	43787	55787	59489	59900	59703
14	1770	2147	2693	3148	4339	3711	3481
17	91212	87290	73313	94802	112948	101359	114019
18	13748	28183	33755	60665	39623	33233	29805
19	134668	136249	138101	142563	149847	154167	167490
20	313204	310833	328882	345919	367725	397923	396475
21	141012	142400	143146	144098	149794	161140	164889
22	31606	44035	50861	92190	99348	108296	128924
23	540370	530122	304176	268422	255569	319406	334934
24	10413	10357	6153	9872	9192	9514	5252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의 수출액은 7년째 큰 변동이 없다. 곡물(HS10) 수출액은 계속 감소세다. 2013년 약 3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9년 약 1억3700만 달러로 줄었다.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HS12)의 수출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증가세를 보였다. 채소·과실·견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의 수출액은 2013년 약 3억1300만 달러에서 2019년 약 3억9600만 달러로 증가세를 보였다. 7년 새 1.26배로 늘었다.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HS23)의 수출액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는 내림세를 보였지만 2017년부터 2019년까지는 오름세를 보였다. 2013년 약 5억40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9년 약 3억3400만 달러로 늘었다.

5) 한국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 구조 현황

<표 Ⅱ-10> 한국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액

(단위: 천 달러)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11219	7710	6581	4531	3114	2663	2063
07	1178	344	619	235	364	559	892
08	22389	14571	10742	14921	17696	18296	16163
09	5345	3850	2508	1889	2617	2862	1918
10	20	5	78	942	39	104	61
11	1898	2701	2683	3337	3343	2952	3241
12	51016	47495	51183	42760	75306	69401	100772
13	5682	6135	10745	11641	15403	16353	20164
14	11	68	157	242	210	70	42
17	147184	129822	124111	133512	109953	99203	91536
18	9769	9906	10160	9526	6492	9861	6202
19	194136	235214	265436	297126	233593	238823	255131
20	33040	39125	52925	79787	69435	76582	98341
21	144380	167547	186119	200582	178709	220000	206179
22	78798	90173	111992	123171	120310	170379	196664
23	5834	5792	5811	6601	9260	7137	6578
24	28277	16518	16205	16542	16136	17230	20186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이 중국에 수출한 농산물은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HS12),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등이 주요 품목이다.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HS12)의 수출액은 증가세를 반복하고 있다. 2013년 약 0.51억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9년 약 1억70만 달러로 늘었다. 연간으로는 1.97배 늘었다. 설탕 및 설탕 과자(HS17)는 감소 추세다. 2013년 약 1억47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9년 약 9700만 달러로 줄었다.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의 수출액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2016년부터 2019년까지는 하락세를 보였다. 2013년 약 1억94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4년 약 2억5500만 달러로 늘었다. 7년 새 1.3배 늘었다. 각종 조제 식료품(HS21)의 수출액은 2017년 소폭 하락한 것을 제외하면 모두 상승세다. 2013년 약 1억 44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9년 약 2억 600만 달러로 늘었다. 7년 새 1.43배 늘었다. 음료・주류・식초(HS22)의 수출액은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꾸준히 늘었다. 2008년 약 7800만 달러였던 수출액은 2014년 약 1억9600만 달러로 늘었다. 7년 새 2.5배 늘었다.

제 3 절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의 이론적 분석

1. 국제 경쟁력 이론 분석

마이클 포터(Michael E. Porter) 의 국가경쟁우위 이론에 따르면 요소요건, 수요요건, 관련 및 산업과 회사의 전략을 지탱하는 것이 기업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주요 요소다[32]. 요소요건이란 자연자원·노동자원·자본·인프라 등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다. 하지만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국가별로 인프라를 중요시

32) 鄧莹.「中韓産業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 나라의 산업 경쟁 수준이 기본적인 생산요소 조건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는 없으며, 국가는 자국의 요소에 의존하여 어느 정도 대체 불가능한 우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33]. 수요조건은 한 나라의 국내 시장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는 기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자국 시장이기 때문에 자국 시장의 잠재력이 아주 큰지 회사의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예를 들면, 사회 리듬이 가속화됨에 따라 사람들은 왕왕 많은 여가를 모을 시간이 없어지고, 실제 수요는 미디어 및 오락 사업을 파편화시킨다. 이에 따라 중국 인터넷 회사들은 시장의 새로운 수요에 발맞춰 짧은 동영상 플랫폼, 간편하고 격식 없으며 시간이 짧은 모바일 게임을 개발해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선보였다. 연관 및 지지 산업은 한 산업의 관련 업종, 공급업체, 상·하류 산업 사슬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관련 및 지원 산업의 발달 여부가 전체 산업 사슬의 경쟁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면, 이탈리아는 전 세계적으로 앞서 있는 사치품 장신구 업종을 소유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 보석 장신구인 우산 기계의 주요 공급업체가 이탈리아에서 온 것이며, 이탈리아는 유가 금속 보석 회수 산업으로 발달한 탓이 큽니다. 회사의 전략은 기업의 조직 방식, 관리 방식, 경쟁 방식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요소는 또 현지의 문화와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적극적인 비즈니스 문화와 정책은 기업이 자신의 관리 방식과 구조를 최적화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강력하게 추진한다.

2. 농산물 국제 경쟁력의 직접적인 요인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은 여러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서 어느 한 요인이든 그 경쟁력의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어서 실제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려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 통상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직접적 요인과 간접적인 요인으로 나누어진다[34].

33) 阮氏秋江, 「中越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湖南大學, 2009.
34) 喻翠玲, 「國際貿易理論演變及其對農業貿易治理的啓示」, 新疆財經大學學報, 2019, p.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1) 농산물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직접적인 요인

먼저 직접적 요인을 살펴보면, 이는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생산과 무역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요소를 말하는데,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연자원의 소인이다. 농업은 강력한 자연자원 지향형 산업이며, 자연환경과 기후는 농업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한 지역 혹은 국가 차원의 농산물 생산량과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35]. 만약 한 국가와 지역이 농산물의 생육에 매우 적합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다면, 농산물의 생산량과 품질은 자연히 보장되어 국제 무역 경쟁에서 일정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는 농산물 생산자 가격이다. 그것은 농산물의 수매 가격을 가리키며, 그 외에 농민들이 직접 비 농업자에게 농산물을 판매하는 가격을 포함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가격으로 농산물의 원가를 측정한다. 이것은 농산물 품목이 많고 농산물의 실제 원가를 구성하는 요소가 너무 많고 복잡하며, 농산물 생산자의 가격은 비교적 통용되고 인정된 농산물 원가를 측정하는 표준이기 때문이다. 제품의 가격은 항상 제품의 시장 경쟁력을 판별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특히 가격 민감형 시장의 경우 가격이 더 낮은 동질화 제품을 택한다.

셋째는 농산물의 품질과 위생이다. 경제 발전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농산물 가격뿐만 아니라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품질의 농산물은 가격이 비싸도 대중이 구매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최근 중국에서 농산물 안전 문제가 빈발하고 있어 농산물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농산물의 품질과 위생은 자연스레 농산물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으며, 일정한 경우에는 결정 요인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비교적 성숙한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농산물이 반드시 가격과 품질에 있어서 균형점을 찾고 가장 우수한 가격대성능비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장은 여전히 비교적 제품의 가격에 관심이 있다. 만약 한 종류의 농산물이 비교적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으나 비교적 높은 가격이라면 그 판매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위생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품의 가격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값싸고 진정한 농산물 경쟁력을 유지

35) 晏琼, 「中國和荷蘭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華中師范大學,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하고 향상할 수 있는 정확한 방법이다.

넷째는 농산물 브랜드이다. 무역 과정에서 시장에서 상표 인지도의 역할이 커지면서 우수한 하나의 브랜드 인지도는 국제 농산물 경쟁력을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예를 들면, 일본, 태국의 쌀 등 국제시장에서 상표 인지도가 있기 때문에 마케팅을 통해 관련 시장에서 수요가 상승되며, 자연스럽게 부가가치를 창출하게 된다. 특히 소비자의 브랜드 선호도를 이용해 농산물이 자연적으로 경쟁력을 갖게 되고, 시장을 빠르게 선점해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다섯째는 농산물 생산 규모이다. 대규모 농산물 생산은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낼 수 있으며, 농산물 생산에 첨단 과학기술을 적용해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원가를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또 대규모 생산은 리스크(RISK)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2) 농산물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요인

간접적인 요인은 일반적으로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과 실제 경쟁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영향을 가리키는데, 이러한 요인은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에 영향을 직접 주지는 못하지만 간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36]. 일반적으로 간접적인 요인은 국가의 정책, 문화, 시장 환경 등을 포함한다.

첫째는 시장 환경이다. 성숙한 시장 환경, 규범적인 시장 운영 체계, 우수한 시장 운영 효율성은 반드시 한 나라의 제품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시장이 조성하는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 환경은 제품 경쟁력 향상에 효과적이다. 서로 다른 요소들이 한 국가의 시장 환경을 구성한다. 예를 들면, 사업장 등의 인프라로 대표되는 시장 하드웨어와 시장 감독제도, 시장 정보 유통 체계, 부대 서비스 산업 등의 시장 환경이 그것이다[37].

둘째는 정치 환경이다. 여기서 정치 환경이란 관련 정책 법규를 말하는데, 이런 정책 법규는 기업의 생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생산 환경은 기업의 생산원가에

36) CHIEWNAWIN SUWANNEE, 「泰中農産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中國碩士學位論文 吉林大學, 2020.

37) 劉字娟,「中國-泰國農産品貿易現狀及競爭力分析」, 广東農業科學, 2017, p.12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한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38].

셋째는 문화 환경이다. 한 산업이 건전한 발전을 유지하려면 반드시 과학문화라는 관념을 가져야 한다. 예를 들어 농업 종사자들이 농업과 관련된 농산물에 대해 깊은 이해를 하고 있다면 농업 이론과 기술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혁신하거나 농산물의 육종, 육성 등을 연구해 농산물의 생산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향상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39].

3. 무역 보완성의 이론적 분석

1) 절대적 우위에 기초하여 형성된 무역 보완성

국가 간 무역은 반드시 어떤 수단을 통해 상호 간 좋을 수 있다(win-win)는 것이 절대 우위론, 즉 전통적인 의미의 단순한 부분적 이익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이다. 이는 실제로 국제 무역의 발전에 중요한 이바지를 하고 있으며, 무역의 핵심은 이익의 공유에 있으며, 한 국가가 무역 관계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면 무역에 대한 적극성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절대 우위 이론은 근본적으로 국제 무역의 발생과 발전에 근거를 제공하는데, 국가 간의 생산조건이 다르므로 어떤 상품이 자국 시장에서 생산되는 데 드는 원가가 국제시장에서의 구매 원가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그 나라는 이런 제품을 계속 대규모로 생산할 필요가 없고, 우세한 자원에 집중하여 원가 우위가 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그 후에 다른 나라의 생산품들과 무역을 진행하며, 다른 나라도 그렇게 제품 생산 분야에서 쌍방은 모두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조건에서 전 세계가 이 원칙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자유 무역을 하게 되면, 각국은 이익이 생겨 무역에 참여하려는 적극성이 높아지게 되고, 제품의 총생산량과 무역량이 눈에 띄게 증가하게 되어 경제 발전에 이르게 된다. 두 나라 모두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는 조건에서 양국 간의 무역은 분명한 상호보완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이론은 일정한 역사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한 나라가 생산과 수출을

38) 劉二眞,「中韓自貿區建立對中國農產品出口貿易的影響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河南工業大學, 2017.
39) 彭瑞娟, 「經濟全球化下我國農產品國際貿易發展路徑」, 全國流通經濟, 2019, pp.19-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위해서는 절대적 우위를 점해야 하고, 두 나라 역시 다른 나라보다 생산 가격이 싸야 무역한다는 이론이다[40].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떤 이유로든 생산의 절대적 우위가 없거나, 어떤 제품을 생산해도 절대적 우위가 있는 나라라는 극단적인 조건에서 무역의 발생과 발전에 큰 지장을 받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다.

2) 비교 우위에 근거하여 형성된 무역 보완성

비교우위이론은 생산력의 상대적 격차가 국제 무역의 근원이며, 이러한 상대적 격차는 생산품의 상대적 원가 차이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한 국가는 생산과 무역에 앞서 자신의 강점과 열세를 평가하고 비교우위를 가진 제품을 대규모로 생산·수출하고, 자국이 우위에 있지 않은 제품을 국제시장에서 구매하는 데 자원을 집중해야 한다.

이 이론은 각국이 기본적으로 모든 제품의 생산에서 비교우위를 차지할 수 없어서 국내 시장 수요에 부합하지만, 국내 생산원가가 상승하고 이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제품이 있을 수밖에 없어서 실제로 무역 상보성 분석을 위한 탄탄한 근거를 제공한다. 상황, 수요를 위한 국가는 불가피하게 다른 국가로부터 그러한 제품을 수입할 것이고, 각 국가는 다른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역 상호보완성이 불가피하다. 한 나라가 완전한 자급자족할 수 없거나, 자급자족 비용이 너무 많이 들면, 자국의 요구를 얻고 무역에서 이익을 얻기 위해 무역에서 상호보완성을 추구할 수밖에 없다[41].

3) 부존자원에 근거하여 형성된 무역 보완성

비교우위이론은 노동생산성의 차이를 인정하여 비교우위의 발생을 일으키었지만, 실제 비교우위는 많은 다른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토지, 노동력, 자본 등이다. 이런 서로 다른 생산요소들이 제품 생산의 기초를 이루었으며, 종합하여 상품의 생산원가도 결정하였다. 부존 자원이론은 각국이 무역하면서 자

40) 周奕辰, 「貿易保護背后的國際貿易理論」, 現代商業, 2019, p.64.
41) 朱華全, 「國際貿易理論的發展及其階段划分」, 納稅, 2019, p.25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국 실상과 여건을 점검하고, 생산요소를 최적화해 자신의 경제구조를 조정해야 경제 발전을 촉진하고, 각국의 무역이익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존자원이 무역의 상호보완에 실질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데, 이는 각 국가가 갖추고 있는 생산요소의 우위에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보편적인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이점도 변화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중국은 개혁·개방 초기 싼 노동력을 많이 보유하고 있어 노동집약적인 제품이라는 장점이 있고, 제품 원가가 비교적 낮고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다. 중국의 제품 생산은 선진국과 무역을 보완하고, 중국은 선진국의 산업 이동을 이어받아 중국산 제품이 대거 선진국 시장에 진입했다. 21세기에 들어와 중국의 경제가 끊임없이 발전함에 따라 원가가 끊임없이 상승하였으며, 동남아 국가보다 현저한 노동력 자원의 우위에 있지 못하고, 이러한 산업이 동남아 국가로 이동하게 되었으며, 이 국가들과 중국 역시 어느 정도의 무역은 보완적이다. 서로 다른 부존자원들이 서로 다른 국가들에서 자신의 생산과 무역 조치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주며, 서로 다른 기간 동안 다른 국가들과 무역을 형성하여 서로 보완을 하고 있다[42].

42) 張金昌, 「波特的國家競爭优勢理論剖析」, 中國工業經濟, 2001, pp.53-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3 장 데이터 분석 및 범위

국제 무역 관계에서 국제 경쟁력 및 보완 관계는 중요한 개념이다. 무역 보상관계란 양국 국가나 지역 간 제품군별과 생산요소별 차이가 큰 것으로 한 국가가 보유한 자연자원, 노동력, 자본 등이 생산요소의 구성요소이다. 반면 양국 간 국제 또는 지역 간 제품군별과 생산요소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게 무역 경쟁 관계다. 무역품의 유동성이 실질적으로 특정 요소의 이동이고, 무역품에 이러한 특정 요소가 포함되는 것은 특정 생산요소가 일종의 비누 약품으로서 무역품 내부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43]. 따라서 두 나라나 지역 간 생산요소를 비교하고 차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양국의 양자 무역구조를 탐구할 수 있다. 통상 두 나라의 무역제품을 분석하는 것이 두 나라의 무역 관계를 탐구하는 표준적인 방식인데, 이는 두 나라 또는 지역 간의 제품 구성과 시장 구성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차별성은 양국 무역 관계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제1절 한·중 농산물 국제 경쟁력의 분석 방법

1. 현시비교우위지수

현시비교우위지수 (RCA, Revealed Comparative Advantage) 는 수출입 무역에서 한 나라나 지역이 차지하는 비교우위를 판별하는 데 중요한 지표다. 제품의 측면에서 보면, 동종 상품의 비교우위 차이가 비교적 적다는 것은 왕왕 양국이 일정한 경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비교우위가 비교적 크다면 같은 종류의 상품에서 보완성을 대표한다[44].

c는 임의의 국가를 대표하고, p는 제품을 대표한다. 이 지수는 국가 i가 p 상품에서 무역 비교우위를 나타내는 데 사용된다. c 국의 p 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세계 무역에서 p 제품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한다.

43) 呂薇薇,「泰中農産品貿易互補特征与對策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广西師范大學, 2015.
44) 劉字娟,「中國-泰國農産品貿易現狀及競爭力分析」, 广東農業科學, 2017, p.16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CA_{cp} = \frac{(X_{cp}/X_c)}{(X_{wp}/X_w)}$$

X_{cp}는 c 국 p 제품의 수출액, X_c는 c 국의 총 수출액이다. X_{wp}는 세계 p 제품의 수출액, Xw는 세계의 총 수출액이다. $RCA_{cp} < 1$는 c 국 p 제품이 비교우위를 차지하지 않는다. $RCA_{cp} > 1$는 c 국 p 제품이 비교우위에 있으며 현시비교우위지수가 클수록 우위에 있다는 뜻이다[45]. Hinloopen and Marresijk(2001)는 현시비교우위지수의 1, 2, 3의 임계치로 하는 4단계 설정 방법이 있다. 그러나 일부 경쟁력을 갖춘 산업의 경우 지수가 매우 큰 값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김홍종, 이경수 외(2005)[46], 박도준(2008)[47] 등의 선행연구를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4가지로 현시비교우위지수의 품목을 분류하였다.

<표 Ⅲ-1> 현시비교우위지수의 품목분류

분류	RCA 기준
비교우위 품목	0.7 ≤ RCA ≤ 1이상
중간우위 품목	0.7 ≥ RCA ≤ 0.5
중간열위 품목	0.5 ≥ RCA ≤ 0.3
비교열위 품목	0.3 ≥ RCA ≤ 0

자료: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45) 劉婷婷,「泰中農産品貿易互補性与競爭性分析」, 中國碩士學位論文 宁波大學, 2013.
46) 이경수,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67.
47) 박도준, 「自由貿易協定의 經濟的 效果와 商品貿易 分野 協商戰略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2007.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무역특화지수

무역특화지수(TSI: Trade Specialization Index)는 한 상품의 총수출액과 총수입액, 그리고 전체 무역액을 이용해 상품의 비교 우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그 공식은 다음과 같다.

$$TSI_{cp} = \frac{X_{cp} - M_{cp}}{X_{cp} + M_{cp}}$$

X_{cp}는 c 국 p 제품의 총 수출액, M_{cp}는 c 국 p 제품의 총 수입액. 무역특화지수는 플러스-마이너스 구분을 하고 있는데, 어떤 품목이 무역 적자를 낼 때 무역경쟁지수를 마이너스로 만든다. 무역 특화지수는 순이익을 고려하기 때문에 무역 특화지수는 그 나라 제품의 무역 균형 여부를 수치로 분석할 수 있다. 무역특화지수는 -1에서 1의 지수로 나타난다. 수출입액이 동일하면 이 지수는 0(영)이 되고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많아질수록 1에 가깝게 된다. 극단적으로 수출만 이뤄지고 수입은 전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 지수는 1이 된다. 이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수출특화의 정도가 높으며 그 제품이 무역흑자를 기록해 양국 간 경쟁력도 그만큼 높다고 할 수 있다. 반면 특정 품목의 수출액이 수입액보다 적으면 이 지수가 음수를 나타내며 -1에 가까울수록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하거나 수출이 활발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지수가 극단적으로 -1일 경우 특정 분류는 완전히 수입특화 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이 경우 수출은 전혀 되지 않고 수입만 이뤄진다는 것으로 이는 특정 분류의 경쟁력이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48].

현시비교우위지수와 마찬가지로 기존논문을 바탕으로 무역특화지수를 판단하기 위해 무역특화지수에 따른 무역특화지수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48) 최현주,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상호 간 산업경쟁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Ⅲ- 2 > 무역특화지수의 품목분류

분류	TSI 기준
수출특화 품목	0.5 ≤ TSI ≤ 1
경쟁가능 품목	0 ≤ TSI ≤ 0.5
경쟁불가능 품목	-0.5 ≤ TSI ≤ 0
수입특화 품목	-1 ≤ TSI ≤ -0.5

자료: 선행논문을 바탕으로 저자 정리

제2절 한·중 농산물 보완성 관계의 분석 방법

1. 무역 보완성 지수

한 국가나 지역의 수출입 수치는 국제 무역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고, 수출품의 비교우위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에서 농산물이 강력한 자원 향도 품목이라는 점에서 더욱 뚜렷하다. 비교우위론에 따르면, 더 높은 이익을 얻기 위해서는 한 국가가 국제 무역에서 비교우위 품목을 대규모로 수출하고 비교우위 품목을 교환해야 한다. 따라서 국가나 지역의 수출 구조에 따라 비교우위 구조를 판정할 수 있지만 한 나라의 비교 열세 결과는 기본적으로 수입구조를 통해 반영된다. 이를 바탕으로 무역 보완성 지수는 한 나라의 제품 수출 구조와 표적 시장 제품 수입구조의 상관성을 분석하는 데 활용된다.

무역 보완성 지수 (Trade Complementarity Index, TCI) 는 두 나라의 수출과 수입 간의 보완성을 판정한다.

$$TCI_{ckp} = RCA_{cp} \times RCA_{kp}$$

TCI_{ckp}는 c 국의 수출과 k 국의 수입 간 p 제품의 보완성 지수, RCA_{cp}는 c 국의 p 제품 비교 우위, RCA_{kp}은 k 국이 p 제품에서 가진 비교 열세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RCA_{cp} = \frac{(X_{cp}/X_c)}{(X_{wp}/X_w)}$$

X_{cp}은 p 제품의 c 국 수출액, X_c은 c 국 수출액, X_{wp}은 p 제품의 전 세계 수출액, X_w은 전 세계 수출액이다.

$$RCA_{kp} = \frac{(M_{kp}/M_k)}{(M_{wp}/M_w)}$$

M_{kp}은 p 제품의 k 국 수입액, M_k은 k 국 수입액, M_{wp}은 p 제품의 전 세계 수입액, M_w은 전 세계수입액이다. RCA_{kp}의 지수가 클수록 k 국의 p 제품 비교우위가 강하고 RCA_{kp}의 지수가 클수록 k 국의 p 제품 비교 열세가 두드러진다는 뜻이다.

TCI_{ckp}는 둘의 곱이기 때문에 TCI_{ckp} 값이 클수록 c 국과 k 국의 p 제품 보완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TCI 값의 취지가 1보다 중요한 경계선으로, TCI > 1 때는 두 나라의 제품이 보완성이 뛰어나고, TCI < 1 때는 두 나라의 제품이 보완성이 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49].

2. 산업 내 무역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Grubel-Lloyd Index)는 동일한 산업 내에서 이루어지는 국제무역의 비중을 측정하는 지수이다. 한·중 양국의 각종 농산물 무역 보완성을 직관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산업 내 무역지수를 통해 산업 내 무역 측면에서 양국의 각종 농산물 무역 보완 상황을 직접 분석한다. 현재 산업 내 무역 수준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통상적으로 Gruel and Lloyd가 세운 산업 내 무역지수를 활용하고 있는데, 이 지표는 산업 무역의 함의를 가장 직관적으로 반영하고 있어 산업의 산업 내 무역 수준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그래서 이 지표를 활용해서 한·

49) 郭界秀,「比較优勢理論研究新進展」, 國際貿易問題, 2013, p.158.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중 양국의 농산물 산업 내 무역 수준을 가늠해 본다.

$$GLI = 1 - \frac{| X_{ck} - M_{ck} |}{X_{ck} + M_{ck}}$$

산업 내 무역지수는 한·중 양국의 농산물 산업 내 무역지수로, X는 중국에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액, M은 중국의 대한국 농산물 수입액, 산업 내 무역지수는 0(영)에서 1의 지수로 나타난다. 산업 내 지수가 0(영)에 가까울수록 한·중 농산물 산업 내에서 무역하는 정도가 낮다는 뜻이다. 즉 한·중 양국이 어떤 농산물일수록 보완성이 높다는 것이다. 산업 내 무역수지가 1에 가까울수록 한·중 농산물 산업 내에서 무역하는 정도가 높다는 뜻이다. 즉 한·중 양국이 어떤 농산물일수록 보완성이 낮다는 것이다[50].

제3절 데이터 범위

국제 무역에서 주요한 화물 부호화 표준은 세 가지인데, 즉 HS, SITC, BEC이다. 이 글은 통일기준으로 세계무역기구(WTO)의 농업협약에서 농산물에 대한 정의를 사용하고, 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harmonized system : HS code)에 따라 농산물 HS코드는 2부의 식물성 생산품과 4부의 생산품 가운데 농산물 라 관련이 있는 제6류-제14류, 제17류-제24류는 그 대상으로 하고 15류, 16류는 분석 이서 제외하도록 한다.

50) 張婧, 「中韓水産品貿易的互補性与競爭性分析」, 世界農業, 2012, pp.54-5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Ⅲ-3> 농산물 HSN 코드 분류

부	류	분류
제2부	6-14 식물성 생산품	제6류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
		제7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
		제8류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
		제9류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
		제10류 곡물
		제11류 제분공업의 생산품과 맥아, 전분, 이눌린(inulin), 밀의 글루텐(gluten)
		제12류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
		제13류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
		제14류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
제4부	17-24 조제 식료품, 음료, 주류, 식초, 담배 또는 제조한	제17류 당류(糖類)와 설탕과자
		제18류 코코아와 그 조제품
		제19류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
		제20류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
		제21류 각종 조제 식료품
		제22류 음료·주류·식초
		제23류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
		제24류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이 논문의 데이터는 유엔무역개발회의(United Nations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UNCTAD)의 데이터베이스에서 유래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중 관련 농산물 데이터를 통해 무역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4 장 데이터 분석 결과와 무역 활성화 방안

제1절 한·중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분석

1. 현시비교우위지수

<표 Ⅳ-1> 한·중 농산물 현시비교우위지수

연 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한 국	0.17	0.16	0.16	0.18	0.19	0.18	0.2
중 국	0.41	0.38	0.36	0.39	0.43	0.41	0.39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2013-2019년 한·중 농산물 무역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는 우선 한국 시각에서 최근 7년간 한국산 농산물의 RCA 지수가 비교적 안정돼 0.18 내외를 유지했지만, 전반적으로 2015년을 고비로 선(先) 하락 후(後)상 승세를 보여 RCA 지수는 2015년 0.16으로 저점을 찍고 2015년 이후 2019년 0.2로 점차 상승했다. 반면 중국 농산물의 RCA 지수는 한국보다 변동성이 커 2015년까지 지속해서 하락하다가 2015년 0.36으로 최저점을 찍었으나 2016년 이후 뚜렷한 하락세를 보여 2017년 0.43으로 최고점을 찍은 뒤 2019년 다시 2016년 수준으로 떨어졌다. 양국의 RCA 지수를 비교한 결과 중국 농산물은 한국보다 국제시장에서 경쟁적으로 앞서는 등 격차가 있지만, 비교 우위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2> 중국의 농산물 무역 RCA 지수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1203	0.1596	0.1176	0.1344	0.1362	0.1402	0.1510
07	1.1497	1.0350	1.0051	1.2017	1.4326	1.3260	1.2616
08	0.4183	0.3526	0.3734	0.3973	0.4375	0.3762	0.4153
09	0.4850	0.4298	0.3962	0.4895	0.5590	0.5841	0.6244
10	0.0383	0.0303	0.0226	0.0340	0.0617	0.0716	0.0854
11	0.3161	0.2579	0.2400	0.2469	0.2808	0.3235	0.3325
12	0.2661	0.2563	0.2458	0.2294	0.2296	0.2208	0.2409
13	1.1556	1.2943	1.3899	1.4653	1.6199	1.5498	1.5397
14	1.0985	0.9516	0.9930	1.0250	1.3103	1.2220	1.0933
17	0.2625	0.2742	0.2873	0.2917	0.3140	0.3661	0.3878
18	0.0982	0.0902	0.0684	0.0716	0.0815	0.0679	0.0653
19	0.2257	0.1901	0.1769	0.1852	0.2006	0.2103	0.2259
20	1.2699	1.0386	0.9464	0.9753	1.0928	1.0333	0.9945
21	0.3577	0.3357	0.3507	0.3779	0.3939	0.3813	0.3935
22	0.1079	0.1209	0.1406	0.1605	0.1699	0.1610	0.1397
23	0.3088	0.3267	0.2752	0.3123	0.3673	0.3181	0.2914
24	0.2979	0.2588	0.2605	0.2725	0.2656	0.2630	0.2630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Ⅳ-2>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무역의 RCA 지수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등 2개 품목의 RCA 지수가 7년간 1을 넘었다.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등 2종류의 RCA 지수는 2014년과 2015년을 제외하고는 0.9를 웃도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1을 웃돈다. 이는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락(lac), 검·수지·그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등 4개 분류의 비교우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곡물(HS10), 코코아와 그 조제품(HS18) 등 2개 클래스 RCA 지수는 비교우위가 약하다.

7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은 대부분 현시비교우위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의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투자 부족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의 농산물 무역액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수입 금액보다 적어 적자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주요 외자 유치국이지만 농업의 경우 외국인 직접투자와 정부투자가 적어 농산물 무역이 부진하다.

둘째, 농산물의 생산 방식이 비교적 낙후되어 이다. 1978년 중국의 개혁개방 이후 농업 개방으로 생산성이 빠르게 향상되었다. 하지만 중국산 농산물 생산 방식은 여전히 소규모의 반자 급성, 분산돼 있어 중국산 농산물 가공, 생산, 대(對)한국 수출의 제한 요인이 되고 있다. 또 중국 농업의 전통적이고 후진적인 인식도 농산물 생산을 가로막고 있다. 체계적인 공급이 시장의 시스템 수요와 맞지 않아 중국산 농산물의 비교 우위가 경쟁우위로 바뀌기 어렵다. 그 결과 경쟁력 있는 한 제품이 어려움을 뚫고 국제시장에 진출할 때는 이미 시간이 지나면서 강점이 사라졌다. 생산 중 각 단계의 서비스 원가 상승과 각종 서비스 품질의 하락으로 인해 생산과 시장이 분리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셋째, 농산물의 표준화 정도가 비교적 낮이다. 중국 농산물 수출의 가장 큰 문제는 품질이다. 중국 농산물 생산자들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무분별하게 화학제품을 사용한다. 이런 행위는 수출 농산물의 농약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을 초래했다. 중국 농산물의 품질은 높아지고 있지만, 선진국의 녹색 기준은 갈수록 엄격해지고 있다. 지금도 중국 농산물의 품질 기준과 검역 기준 간 격차가 여전하고, 중국의 많은 농산물 기술 기준도 국제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1978년 이전까지 중국 농산물은 장기간의 계획경제 체제 영향으로 대량생산, 저가 판매를 강조해 품질 경시 풍조를 조장했다. 원래 농산물의 저가 전략은 매우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런 전략은 여러 나라의 반덤핑의 원인이 되고 있다. 또 농산물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생산가공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부족해 표준화의 정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이유로 중국 농산물은 선진국에 수출하기 어렵다.

넷째, 농산물 수입 관세 너무 높이다.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한 이래 각종 농업정책은 더 좋아졌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많다. 수입에 대한 행정적 규제를 줄이고 대부분의 산품이 공정하게 경쟁하고 있지만, 잠재적 제약 요인이 많다. 또 농산물 관세 제도를 개선했지만 미숙한 행정체제는 여러 가지 규제의 원인이 있다. 농업생산 부문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수입 농산물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한다. 이 때문에 대충 가공 수입 농산물의 수입가격이 높아져 가공 후 재수출 농산물은 경쟁력이 없다는 단점이 있다. 물론 중국 정부가 수출관세 환급 제도를 마련해 보완하고 있지만 최근 삭감된 농산물 가공 산업의 경쟁력은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51].

51) 鄧莹.「中韓産業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3> 한국의 농산물 무역 RCA 지수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1079	0.0684	0.0526	0.0504	0.0404	0.0316	0.0313
07	0.0934	0.0866	0.0796	0.0872	0.0911	0.1026	0.1295
08	0.0588	0.0508	0.0445	0.0494	0.0560	0.0575	0.0644
09	0.0234	0.0152	0.0150	0.0154	0.0179	0.0187	0.0203
10	0.0011	0.0012	0.0015	0.0019	0.0057	0.0140	0.0095
11	0.1210	0.1057	0.1044	0.0945	0.0886	0.0662	0.0809
12	0.1048	0.0989	0.1037	0.1085	0.1421	0.1356	0.1643
13	0.3237	0.3391	0.4027	0.4461	0.4436	0.4236	0.4681
14	0.0077	0.0071	0.0136	0.0148	0.0213	0.0056	0.0088
17	0.3020	0.3191	0.3103	0.2871	0.2686	0.2768	0.3087
18	0.0513	0.0427	0.0388	0.0398	0.0558	0.0437	0.0418
19	0.4427	0.4164	0.4234	0.4625	0.4604	0.4680	0.5337
20	0.1187	0.1087	0.1042	0.1304	0.1287	0.1390	0.2385
21	0.5814	0.5381	0.5272	0.5575	0.5997	0.5780	0.6068
22	0.2246	0.2305	0.2308	0.2433	0.2395	0.2517	0.2824
23	0.0849	0.0975	0.0810	0.0845	0.1039	0.0792	0.0980
24	0.5492	0.6267	0.8070	0.8987	0.9948	0.7521	0.8325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Ⅳ-3>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은 농산물 무역 전 분류인 현시비교우위지수 지수가 1보다 작았고 변동성도 크지 않았다. 그만큼 한국의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이 약하다는 뜻이다. 한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약한 이유는 여러 가지다.

첫째, 국토 면적이 작이다. 한국은 주변 삼면이 바다인 반도 국가로 국토가 좁고 농지 국토의 17%가량을 차지한다. 한 온대 기후는 농작물의 생장에 적합하지 않다. 가뜩이나 면적이 좁은 농경지는 산업 발전에 밀려 1인당 경지 면적이 0.6무 정도에 불과하다. 실제로 농경지는 계속 줄고 있고, 농가 소득은 농산물 가격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고공행진 속에서도 매년 감소하고 있다.

둘째, 노동력이 부족이다. 한국은 토지자원이 적고 농업생산에 필요한 노동력이 부족해 농업이 갈수록 취약해지고 있다. 농업에 대한 보호 정책이 없으면 농업이 쇠퇴하거나 사라질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 취약한 산업이 보호받는 것은 한국의 풍부한 경제력과 선진 과학기술 덕분이다. 1960년대부터 한국은 수출주도형 산업화의 국민 경제 고도성장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다. WTO 체제 구축으로 농업도 국제경쟁 시대로 접어들면서 한국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좁은 국토에 인구가 많고 경지율이 낮아 가구당 경지면적이 작다. 총 경지면적은 감소 추세지만 이농 인구가 늘면서 가계의 경지면적은 늘어나는 추세다. 농가에 대해서는 농촌 인구 및 유동을 지속해서 농촌 인구의 도시로 성장률 매년 많이 감소 추세가 느려지고 있다. 지금 한 편 보면 농업 노동력의 20-49세의 비율은 많이 감소하였고 이와 함께 60세 이상 노인과 여성의 비율은 증가 추세다. 이 때문에 농업 노동력 감소는 물론 인구 고령화와 여성화로 농촌 노동력의 질이 떨어졌다. 그래서 농업의 다변화, 기계화가 진행됐다. 농경지 부족과 노동력·자원 부족에 따른 농업 생산량 감소와 가격 상승으로 국제 무역 시장에서 한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계속 약화 되고 있다.

셋째, 농산물무역 보호 과잉이다. 한국의 농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국가 수당을 받는다. 보조금은 농산물 수매 가격 인상, 농기계 보조금, 신기술 확산, 재배 미세화, 농업 현대화를 추진한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물론 외국 농산물이 많이 들어올 수 없도록 우리 농업인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 보호로 한국 농업이 시장경제에 먹히지 않으면서도 국제시장보다 가격이 비싸고, 한국 농업은 약해져 국제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52].

한·중 수교 이후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변동 폭이 컸다. 반면 한국의 농산물은 경쟁력이 약하고 변동이 적다. 중국과 한국은 자원 집약성은 비슷하지만, 생산 방식이 다른 데다 농업정책도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들어 중국 도시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자원의 손실이 컸기 때문이다. 반면 우리 정부는 농산물의 수출경쟁력이 약해 농산업에 보조금을 주고, 농민 소득 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동시에 무역장벽을 세워 해결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변동 폭은

52) 白懿鱗, 「中韓農産品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哈爾濱師范大學, 2013.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크지 않다.

한·중 농산물 무역의 비교우위지수를 분석해 보면 중국 농산물이 한국산 농산물보다 모두 비교 우위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산 농산물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등 4개 부류는 비교우위에 강하다. 반면 곡물(HS10), 코코아와 그 조제품(HS18) 등 2개 부류는 비교우위가 약했다. 7년간 중국 농산물은 대부분 품목의 RCA 지수가 하락세를 보였다.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농업 투자 부족, 농산물 생산 방식 낙후, 농산물 표준화 저조, 농산물 수입 관세가 높다는 것 등이다. 또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변동 폭이 컸다. 반면 한국산 농산물은 경쟁력이 약하고 변동이 적다. 양국의 생산 방식과 농업정책이 비슷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도시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자원의 손실이 비교적 심각하다. 반면 한국 농산물은 수출경쟁력이 약해 농산업에 많은 생산수당을 주고, 농가 소득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구축한다. 따라서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무역특화지수

<표 Ⅳ-4> 중국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2274	0.3683	0.1593	0.1863	0.0930	0.1294	0.2311
07	0.5107	0.5225	0.5499	0.6996	0.6941	0.6754	0.7367
08	0.0086	-0.0873	-0.0765	-0.0335	-0.0902	-0.2432	-0.3037
09	0.7951	0.7551	0.7289	0.6344	0.7225	0.6772	0.5852
10	-0.8154	-0.8654	-0.9334	-0.8591	-0.8106	-0.7182	-0.6370
11	-0.1357	-0.2231	-0.2351	-0.2242	-0.2563	-0.1970	-0.2273
12	-0.8716	-0.8729	-0.8638	-0.8695	-0.8878	-0.8822	-0.8664
13	0.6742	0.6954	0.6968	0.7090	0.6809	0.6593	0.5828
14	-0.3498	-0.3166	-0.2238	-0.2573	-0.1443	-0.0580	-0.0516
17	-0.2390	-0.0739	-0.1421	0.0779	0.1110	0.1249	0.0742
18	-0.2984	-0.2934	-0.3274	-0.2336	-0.2740	-0.3216	-0.3395
19	-0.2557	-0.2829	-0.4306	-0.4856	-0.5501	-0.5426	-0.5297
20	0.8446	0.8177	0.7880	0.7640	0.7512	0.7038	0.6795
21	0.3431	0.3162	0.2502	0.1939	0.1543	0.0609	0.0372
22	-0.3903	-0.3135	-0.3646	-0.3697	-0.4073	-0.4616	-0.4702
23	-0.1440	-0.0995	-0.2483	-0.0505	-0.1219	-0.0995	-0.1713
24	-0.0496	-0.2395	-0.1593	-0.1128	-0.1411	-0.1116	-0.1459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Ⅳ-4>에서 볼 수 있듯이 중국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는 살아 있는 수목과 그 밖의 식물, 인경(鱗莖)·뿌리와 이와 유사한 물품, 절화(切花)와 장식용 잎(HS06), 살아 있는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HS09),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이는 경쟁 가능 품목이다. 특히 살아 있는 식용의 채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뿌리・괴경(塊莖)(HS07), 커피・차・마테(maté)・향신료(HS09),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이는 수출특화 품목 있다. 반면 곡물(HS1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HS12),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당류(糖類)와 설탕과자(HS17), 코코아와 그 조제품(HS18),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음료・주류・식초(HS22) 등은 수입특화 품목 있다.

<표 Ⅳ-5> 한국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0587	-0.3298	-0.5163	-0.5590	-0.6180	-0.7113	-0.7374
07	-0.6338	-0.6079	-0.6154	-0.5972	-0.5831	-0.5599	-0.4797
08	-0.8077	-0.8303	-0.8468	-0.8173	-0.8200	-0.8150	-0.7825
09	-0.8944	-0.9341	-0.9343	-0.9353	-0.9381	-0.9316	-0.9341
10	-0.9984	-0.9979	-0.9974	-0.9965	-0.9900	-0.9745	-0.9853
11	-0.6227	-0.6576	-0.6715	-0.7045	-0.7429	-0.7612	-0.7239
12	-0.7149	-0.7275	-0.6912	-0.6630	-0.5809	-0.5795	-0.5644
13	-0.3490	-0.3307	-0.2987	-0.3365	-0.4053	-0.3867	-0.4321
14	-0.9928	-0.9927	-0.9895	-0.9909	-0.9855	-0.9966	-0.9953
17	-0.5077	-0.4798	-0.4713	-0.4915	-0.5437	-0.5244	-0.5412
18	-0.7479	-0.7575	-0.7385	-0.7683	-0.7251	-0.7252	-0.7528
19	0.1776	0.1581	0.1690	0.1787	0.1365	0.1667	0.1975
20	-0.6523	-0.6494	-0.6675	-0.6141	-0.6397	-0.6272	-0.4867
21	-0.0728	-0.0993	-0.1184	-0.1394	-0.1284	-0.1635	-0.2497
22	-0.0667	-0.0726	-0.0905	-0.0928	-0.1462	-0.1500	-0.1389
23	-0.8506	-0.8209	-0.8395	-0.8334	-0.8079	-0.8434	-0.8303
24	0.2197	0.3242	0.4778	0.4429	0.4486	0.2464	0.4382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5>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농산물 무역특화지수는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HS24) 외에 기타 품목은 경쟁 불가능 품목 있다.

7년간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은 대부분 떨어지는 추세다.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주된 원인은 농업투자 부족, 농산물 생산 방식 낙후, 농산물 표준화 저조, 농산물 관세 과다 등이다. 또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변동 폭이 컸다. 반면 한국산 농산물은 경쟁력이 약하고 변동이 적다. 양국의 생산 방식이 농업정책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도시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자원의 손실이 비교적 심각하다. 반면 한국산 농산물은 수출경쟁력이 약해 농산업에 많은 생산수당을 주고, 농가 소득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구축한다. 따라서 한국의 농산물 경쟁력 변동 폭은 크지 않다.

제2절 한·중 농산물의 보완성 분석

1. 무역 보완성 지수

무역 보완성 지수(TCI)는 두 가지를 고려해야 한다. 예를 들어 B 국 품목의 수출이 적고 수입이 많으면 해당국 품목의 RCA 수출 비교 우위가 적어 RCA 수입의 열세가 크다. 반면 A 국의 경우 수출이 많은 품목, 수입이 적은 품목은 RCA 수출 비교 우위가 큰 편이어서 RCA 수입 열세가 덜한 편이다. 이때 B 국의 수출과 A 국의 수입품 무역 보완성 지수(TCI)를 합산하면 수치가 작아 B 국과 A 국의 무역 보완성이 약하다는 이미지만 실제로는 A 국의 중요한 수출국이라는 점에서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다. 반면 A 국의 수출과 B 국의 수입품 무역 보완성 지수(TCI)를 합산하면 실제와 비슷한 수치가 나왔다[53].

53) 金美麗, 楊天宇, 李爽, 「中韓農産品貿易的制約因素及對策」, 對外經貿, 2016, pp.21-2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6> 2013-2019년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농산물 무역 보완성 지수

HS 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0167	0.0256	0.0251	0.0303	0.0294	0.0315	0.0376
07	0.4717	0.3936	0.4094	0.5007	0.5503	0.5246	0.4744
08	0.2119	0.1918	0.2227	0.2222	0.2528	0.2138	0.2159
09	0.2160	0.2144	0.2170	0.2850	0.3444	0.3456	0.4159
10	0.0660	0.0414	0.0302	0.0446	0.0971	0.1065	0.1421
11	0.1911	0.1670	0.1732	0.1785	0.2383	0.2127	0.2136
12	0.1732	0.1620	0.1552	0.1453	0.1428	0.1241	0.1511
13	0.9105	1.0267	1.2510	1.6618	2.0484	1.7400	2.0537
14	1.7222	1.5987	2.5763	3.2821	3.3167	3.2425	3.0357
17	0.2829	0.2936	0.3097	0.3192	0.3985	0.4096	0.4788
18	0.0316	0.0276	0.0226	0.0261	0.0282	0.0214	0.0211
19	0.0774	0.0688	0.0677	0.0770	0.0898	0.0864	0.0940
20	0.7611	0.6108	0.6413	0.6982	0.7970	0.7505	0.7902
21	0.2662	0.2534	0.2959	0.3561	0.4067	0.3828	0.4624
22	0.0308	0.0365	0.0481	0.0583	0.0645	0.0614	0.0549
23	0.3509	0.3508	0.3009	0.3581	0.3947	0.3521	0.3366
24	0.1097	0.0889	0.0874	0.1116	0.1274	0.1401	0.0980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2013-2019년 중국의 대(對)한국 수출 농산물 무역 보완성 지수를 산출했다. <표 Ⅳ-6>에서 볼 수 있듯이 한·중 농산물의 보완성은 대부분 높지 않다. 이 중 무역 상호성을 갖춘 농산물 분류는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이다. 이 밖에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은 1보다 작지만 큰 수치를 갖고 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표 Ⅳ-7> 2013-2019년 한국의 대(對)중국 수출 농산물 무역 보완성 지수

HS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0097	0.0065	0.0065	0.0064	0.0059	0.0042	0.0040
07	0.0357	0.0330	0.0318	0.0242	0.0268	0.0296	0.0282
08	0.0231	0.0233	0.0241	0.0259	0.0307	0.0370	0.0550
09	0.0014	0.0011	0.0013	0.0023	0.0018	0.0024	0.0041
10	0.0005	0.0006	0.0013	0.0011	0.0048	0.0087	0.0053
11	0.0609	0.0596	0.0617	0.0529	0.0608	0.0445	0.0606
12	0.4376	0.4131	0.4349	0.4568	0.6517	0.5454	0.6559
13	0.0893	0.1018	0.1354	0.1522	0.1685	0.1633	0.2395
14	0.0135	0.0123	0.0239	0.0276	0.0331	0.0064	0.0090
17	0.1570	0.1313	0.1662	0.1008	0.0965	0.1028	0.1371
18	0.0088	0.0076	0.0075	0.0060	0.0081	0.0069	0.0067
19	0.1952	0.1857	0.2683	0.3456	0.4172	0.4213	0.5091
20	0.0141	0.0143	0.0170	0.0242	0.0255	0.0309	0.0581
21	0.1174	0.1183	0.1570	0.1967	0.2356	0.2517	0.2876
22	0.0642	0.0661	0.0967	0.1139	0.1168	0.1272	0.1285
23	0.0395	0.0462	0.0489	0.0390	0.0549	0.0378	0.0492
24	0.1976	0.3116	0.3823	0.3927	0.4552	0.2996	0.3756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Ⅳ-7>에서 볼 수 있듯이 2013-2019년 한국의 대(對)중국 농산물 수출의 보완성은 1보다 낮았다. <표 Ⅳ-6> 과<표 Ⅳ-7>를 결합하면 한·중 농산물 무역에서 높은 보완성은 중국과의 수출과 한국에 수입된 농산물에서 나온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따라 한·중 농산물 수출입에서 무역 적자가 발생할 전망이다. 중국 농산물은 수출도 많고 수입도 적으며, 한국 농산물은 수출도 적고 수입도 많은 게 현실과 맞아 떨어진다. 또 한국의 대(對)중국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대(對)한국 수입 의존도보다 높다는 사실도 알 수 있다. 한국과 중국 사이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에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등 3개 품목 농산물은 보완성이 있다.

2. 산업 내 무역지수

<표 Ⅳ-8> 한·중 농산물 산업 내 무역지수

HS코드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06	0.5711	0.3425	0.2455	0.1728	0.1289	0.1022	0.0752
07	0.0046	0.0014	0.0023	0.0008	0.0014	0.0021	0.0035
08	0.6053	0.5084	0.4300	0.5148	0.6282	0.5863	0.5498
09	0.3435	0.2702	0.1710	0.1314	0.2540	0.1941	0.1092
10	0.0001	0.0000	0.0009	0.0115	0.0006	0.0016	0.0009
11	0.0917	0.1298	0.1362	0.1713	0.1389	0.1069	0.1172
12	0.2590	0.2327	0.2959	0.2767	0.4159	0.3733	0.4689
13	0.2019	0.2199	0.3941	0.3453	0.4113	0.4289	0.5049
14	0.0128	0.0618	0.1100	0.1428	0.0921	0.0372	0.0236
17	0.7652	0.8041	0.7427	0.8305	0.9866	0.9893	0.8906
18	0.8308	0.5202	0.4627	0.2714	0.2815	0.4577	0.3445
19	0.8191	0.7336	0.6845	0.6485	0.7816	0.7846	0.7926
20	0.1908	0.2236	0.2772	0.3748	0.3177	0.3228	0.3975
21	0.9882	0.9189	0.8695	0.8361	0.9120	0.8456	0.8887
22	0.5726	0.6562	0.6246	0.8561	0.9046	0.7772	0.7919
23	0.0214	0.0216	0.0375	0.0480	0.0699	0.0437	0.0385
24	0.5383	0.7707	0.5504	0.7475	0.7258	0.7115	0.4129

자료: 국제연합 무역개발회의 통계 데이터베이스 (https://comtrade.un.org/)

<표 Ⅳ-8>에서 볼 수 있듯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중 농산물 무역의 산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업 내 무역지수는 대부분 낮은 상태지만 일부 분류는 점차 상승하는 추세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HS08),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HS24) 등 6개 품목 산업 내 무역수지(GLI)는 0.5를 웃돌았다. 이런 분류의 무역 보완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들 분류를 제외한 나머지 분류의 산업 내 무역수지가 낮은 것은 보완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16개 분류의 한·중 농산물 무역 평균 지수를 보면 2013년 평균 0.40, 2019년 평균 0.37이었지만 그동안 소폭의 변동성을 보였다. 이는 한·중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이 비교적 안정적인 변동성을 보임을 보여준다.

어쨌든 한·중 농산물 무역의 산업 내 무역지수는 대부분 낮은 상태지만 점차 활성화되는 종목도 있다. 한·중 농산물 무역산업 내 무역지수를 분석해 보면 HS08, HS17, HS19, HS21, HS22, HS24 품목의 농산물 무역 보완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항목 외에 기타 항목의 농산물 무역은 보완성이 비교적 높다. 7년간 16개 분류의 평균 지수를 보면 2013년 0.4에서 2019년 0.37로 평균 지수가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그만큼 한·중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이 높아지는 추세다. 양국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은 문화 및 소비심리, 보호무역 정책 등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3절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활성화 방안

제4장 1, 2절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보면 한·중 농산물 무역에서 중국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은 한국보다 높고 보완성은 어느 정도 향상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한국산 농산물보다 모두 비교 우위에 있고,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중국의 한국 수입 의존도보다 높다는 것을 있다. 한·중 농산물 무역을 적극 추진하고 발전시키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하다. 한국은 농산물 보호를 위해 높은 수입 관세를 부과하고,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농산물 중 쌀을 제외한 모든 품목에 대해 일정 기간 관세를 철폐해 중국 농산물의 한국 내 경쟁력을 간접적으로 약화시켰다. 반면 중국은 막대한 농산물 잠재 소비시장을 갖고 있어 한국 농산물의 대중 수출 확대에 여지를 제공하고 있다. 양국 농산물 무역 전망을 단순하게 전망하고 한·중 농산물 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1. 한국

1) 국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지원

국제경쟁력을 분석한 결과는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과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HS24)이 분류한 농산물 가운데 한국이 어느 정도 국제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농산물의 재배 확대에서 한국은 제한된 농업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국산 농산물과의 무역을 확대하고, 우수한 농업인력·기술·자본을 활용해 해외 직접투자로 중국에 진출해야 한다. 중국은 값싼 노동력과 넓은 토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자본과 기술이 부족해 농산물 경쟁은 국제경쟁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우수한 농업 인재와 기술, 자본을 활용해 해외 직접투자로 진출, 중국과 합작 재배한 뒤 중국의 저임금 노동력을 활용해 가공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의 기술과 자본·인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또 농업 분야의 상호교류단체나 협회는 정부 간에 설립·운영돼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한·중 농산물 무역 분쟁 등 무역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문제를 해결하고 농업기술과 인재교류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제 세계는 하나의 통일된 시장으로 변했고, 무역만으로는 해외시장을 개척하기 어렵다. 지구촌 시대의 성공자는 어디에나 있는 비교우위의 자원과 경영을 십분 활용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생산 확대를 위해 국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의 우위를 유지하고 제한된 농업생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지속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하다.

2)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한·중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및 보완적인 수치를 보면 한국은 곡물(HS10)과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등 저급 농산물의 생산과 농업자원 수출에는 자연적인 이유로 다소 부족하지만 한편 일부 고급 가공 농산물의 경우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과 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등이 한국의 기술과 자본이 풍부함을 알 수 있다. 한국의 농산물 가공은 중국의 전통 농업보다 우위에 있다. 따라서 정부는 자국민을 전통농업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농산물 가공업으로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런 추세가 국내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농민이 전통 농업에서 농산물 가공업 양립 농업으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하면 농가 소득을 늘리고 정부의 불필요한 재정지출도 줄일 수 있어 정부에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농촌 지역 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산업발전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고 합리적으로 유도해 농업의 조합화를 촉진해야 한다. 과거 한국 제조업의 성공적인 시장 개혁은 농업 구조에 귀중한 경험을 제공한다. 한국 정부는 농업 시장화 개혁에서 과거의 경험을 살려 농업을 일반 농업에서 종합 농업으로 발전시키고, 국내 농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농업 시장화 개혁이 점차 진행되면서 자국 농민들에게 충분한 시간과 공간을 줘야 한다. 이를 통해 점진적으로 한국 농업 시장화를 실현해야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3) 농민의 비농업 소득 증대

두 방안 외에도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HS08)과 곡물(HS10) 등 농산물 생산에 종사하는 일부 농민들은 한국이 농산물 자족 유지와 국제 농산물 산업 파동으로 인한 악영향으로부터 한국을 보호하기 위한 마지노선이자 보호 차원에서 비농업 소득을 늘려야 한다. 농민의 수입은 농업 수입과 비농업 수입으로 구성된다. 한국 농민의 소득은 농업 소득에 의존한다. 한국의 농경지 자원은 쌀 재배와 생산에, 농가 소득은 쌀 가격과 생산량에 의존한다. 비농업 소득에서 한국 농민이 차지하는 비중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 농민에 비해 적다. 한국 정부는 다른 나라와의 FTA에 크게 의존하고 있지만, 한·중 FTA, 한·미 FTA, EU FTA, 한국 농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정부는 이에 대비해 우리 농민들에게 재정 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비농업 소득을 늘리는 조처를 해야 한다. 농민의 비농업 소득을 늘리기 위해 친환경적인 관광 농업을 적극적으로 장려할 수 있다. 관광자원 개발에 강점을 보이는 한국 정부는 내국인 농민을 조직해 친환경 관광 농업을 개발하고 발전 시켜 국내외 관광객을 농촌 체험에 끌어들이고 있다[54]. 농민의 소득을 올리는 데는 이런 방식이 필요하다. 농민들이 정부 보조금에 의존해 온다면 정부가 부담을 느끼고, 한국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조금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비농업 소득을 확대해야 한다.

4) 한·중 양국의 농업 합작 촉진

한·중 양국 모두 국가 경제의 민생 대계가 걸린 농업으로서 발전을 중시하고 있다. 중국은 예로부터 노동집약적인 품목을 수출할 정도로 농업 대국이었지만 한국은 지리적 제약으로 농업이 약세를 보였고, 정부 조치로 자국의 농업을 보호해 왔기 때문에 한·중 간 농산물 무역이 빈번한데도 통상 마찰이 빚어졌다. 한·중 농산물 무역 규모가 커지면서 통상 마찰도 커지고 있다. 수출 농산물의 품질이

54) 楊歡慶, 「中韓FTA對兩國農產品貿易影響及對策」, 中國碩士學位論文 東北財經大學, 2014, p.34.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불량한 중국 쪽 문제, 한국 쪽 문제, 한국 국민의 민족 콤플렉스가 두드러진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기업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정부가 나서 한·중 정부의 대화와 협력을 촉진하고 농산물 무역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한다. 양국 정부는 한·중 농산물 무역이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결과라는 점을 알리고, 한·중 간 농산물 무역 논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농산물 무역에 대한 태도를 실시간으로 파악 해야 한다. 또 국가정책과 무역 법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중 양국 정부가 교류와 협력을 통해 격차를 줄이고 농산물 분야에서도 더 나은 협력을 이뤄내야 한다.

양국 간 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쌍방의 농업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업 협력과 융합을 실현해야 한다. 중국과 한국은 교역구조와 자원을 보완해 강점에 따라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토지자원으로 생산과 수요는 농산물의 대한 무역,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연구·경제적 강점, 자금적 강점, 선진 농업 장비, 우량 품종으로 중국 시장을 서비스해야 한다. 중국의 양적 개선, 농산물의 질적 개선, 한국의 소비자 욕구 충족, 상호 윈-윈 거래로 이어졌다.

중국의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경제 발전 과정에서 농업과 농산물 무역을 중시해 연구개발(r&d) 투자를 계속 늘려왔다. 한국의 국토가 좁고 토지자원이 한정돼 있지만, 농업 과학 기술 대한 연구는 농업연구의 완전한 체계일 뿐 아니라 과학기술인 양성에서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은 비 농산물 무역협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채널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특히 생물공학, 농업 과학기술 혁신, 농업생태 및 환경 보전을 위한 농업연구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함께 중국과 한국은 동물·식물 위생 협력에 관한 기준에서 함께 발전하는 안전 테스트에 유의해야 하며, 선진국들은 프로젝트 협력에서 바람직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2. 중국

1) 한국 시장의 수요 파악

중국의 수출 구조가 한국의 수입 수요 구조와 맞아떨어져야 중국 농산물의 한국 수출 증가를 촉진하고,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의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다. 한국은 중국보다 토지자원·노동력 자원은 희박하고 자본은 풍부하다. 요소별 이론에 따르면 한국은 토지집약형과 노동력집약형 농산물을 수입하고 자본집약형 제품을 수출해야 한다. 제3절 한·중 양국 농산물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 검증에 따르면 한국은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등 수입에 대한 수요가 많고, 그 이상은 모두 초급 농산물에 속한다. 한·중 농산물 무역의 상호보완성을 분석한 결과 한국 농산물 시장은 토지 집약적·노동집약적 초급 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농산물 수출 상품 구조 개편

중국은 한국에 수출하는 락(lac)·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등 수출 규모가 크고, 그 이상은 모두 초급 농산물에 속한다. 비교우위이론과 요소별 국제분업 논문에 부합하지만, 초보 농산물은 위생 점검 검역 조치의 영향을 받기 쉬워 한국 수출에 미치는 저해도 크다. 무역 상호성 지수와 산업 내 무역지수 추계를 통해 중국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 무역은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곡물(HS10)의 발전 가능성이 크다.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감귤류・멜론의 껍질(HS08),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HS24)도 미개발 잠재력이 많다. 따라서 중국은 농산물 수출 상품 구조를 개편해 현재의 강점을 유지하면서 남는 무역 여건을 개발해야 한다. 중국은 위생 점검 검역 위주의 무역장벽에 대응하기 위해 농업에 대한 과학기술 투입을 늘리고, 농산물 기술 부가가치를 높이며, 차별화된 농산물을 생산해 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가공품 수출도 강화해야 한다.

3) 농산물 무역에 대한 정부의 지지 강화

국제 경쟁력의 결과를 보면 농업은 중국의 기간산업으로 정부가 농업을 중시해 왔지만, 농업 산업 구조가 낮은 데다 강력한 산업조직이 뒷받침되지 않고 품질감독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국제경쟁력이 약해 기술적인 무역장벽과 위생 점검 검역 등 비관세 장벽에 취약하다. 국가경쟁 우위론은 정부가 투자를 통해 기술인력 등 고급요소를 육성하거나 국내 수요와 농업 관련 지원 산업 등에 영향을 주는 방식으로 국제시장에서 경쟁우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만큼 농산물 교역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55]. 한편 정부는 농업에 대한 재정투입 확대, 특히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등은 농산물 관련 산업을 분류해 국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의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농업기술인력 양성, 농업생산 전문기술 및 고급생산설비 개발, 투자를 통한 중국 고급요소 육성, 농산물 수출 경쟁우위 확대 등을 추진해야 한다. 한편 정부는 농산물 수출 장려와 농업 관련 지원 산업 우대, 농산물 수출원가 절감과 농업 지원 산업 육성을 통한 수출경쟁력 제고 등을 추진해야 한다.

4) 기초 농산물 품질의 관리 강화

중국의 농산물 수출은 초급 농산물 위주로 이뤄져 비교우위지수에서 식용의 채

55) Wen, Simei, Jing Zheng, Xiaoli Liu, 「An Analysis on China's Agricultural Bilateral Trade Costs? 1995-2007」, China Agricultural Economic Review, 2013, pp.360-3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소・뿌리・괴경(塊莖)(HS07),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등 분류 농산물의 국제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가 높지 않아 무역장벽, 특히 비관세 장치의 규제에 부딪히기 일쑤다. 반면 한국은 선천적 요소인 농업 기반이 취약하고 외래 농산물의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고도의 보호무역 정책을 펴고 있다. 한·중 양국은 WTO 구성국으로 최혜국 대우를 받기 때문에 관세장벽의 영향력은 약화했고, 비관세 장벽은 위생검증 검역 조치와 녹색 무역장벽 효과가 가장 큰 중국 농산물의 자국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주요 수단이 됐다. 무역장벽이 한·중 농산물 교역 확대를 가로막는 데는 정책 외에도 품질 안전도 한몫했다. 이런 어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수출 농산물의 품질 안전에 대한 엄격한 감시가 필요하다[56]. 다음 몇 가지 측면을 통해 수출 농산물의 품질 관리를 강화할 수 있다. 첫째, 수출 농산물의 품질 안전기준을 최대한 높여 우리 농산물 수입의 품질요구 수준을 충족시켜야 녹색 무역장벽 등 비 관세장벽의 걸림돌을 최소화할 수 있다. 둘째, 생산 단계에 대한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의 재배, 양식 환경 및 생산 과정, 생산 방식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하고, 생산 근원으로부터 농산물의 친환경적인 환경을 보장하다. 셋째, 유통 고리에 대한 품질 안전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농산물의 유통 단계마다 품질을 표시해 문제 고리를 가장 빨리 추적할 수 있도록 소급 시스템을 구축하다. 넷째, 농산물 품질 안전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 정부는 농산물 품질 안전이 법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품질 안전 보장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업체 측은 법 규정에 따라 기업의 품질 안전 검사 체계를 보완하고 농산물 생산·유통 단계의 품질 안전 검사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

5) 한·중 정부 간의 교류 강화

한·중 정부 간 교류 강화는 양국 정부 간 관계 진전에 도움이 되며, 좋은 정부

56) 彭瑞娟, 「經濟全球化下我國農產品國際貿易發展路徑」, 全國流通經濟, 2019, pp.19-20.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관계는 양국 간 무역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토대가 된다. 중국은 한·중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해 한국 정부와 정치적 관계를 잘 구축해야 한다. 정부 간 소통 강화는 중국 스스로 한국 정부와 정치적 교류를 강화해야 한다. 양국 지도자와 정부 고위층 간 교류를 통해 양국 정치 신뢰는 물론 양국 간 정치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역에서 발생하는 분쟁과 마찰을 더욱 조화롭고 이성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빠른 문제 해결은 물론 양국 국민의 신뢰도 제고시킬 수 있을 것이다[57]. 한편으로 중국은 한국 정부와 경제·무역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 경제협력은 이미 세계 무역 발전의 새로운 특징이 되어 한·중 양국 간 농산물 무역의 발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한·중 양국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한·중 FTA 2단계 협상은 2017년 12월 양국 정상이 공동 개시를 선언하면서 시작됐고, 2020년 8월 양국은 경제무역공동위원회 제24차 회의를 열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양자 간 경제무역 협력을 업그레이드하기로 합의했다. 2015년 발효된 한·중 FTA는 현재 7차례 관세 인하를 단행했고 무관세 무역액 커버리지 55%를 넘어 양국 농산물 무역에 새로운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0년 11월 15일 제4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정상회의가 화상으로 열린 뒤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총 15개국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정식 서명했다. 이는 중국의 대(對)한국 농산물 수출 촉진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57) Shiro Armstrong, 「Measuring Trade and Trade Potential 」, SSRN Electric Joumal, 2011, pp.1-15.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제 5 장 결론

한·중 농산물 무역이 늘어나는 추세이고, 양국 간 농산물 수출 증가세를 보면 중국과 한국의 농산물 무역이 빠르게 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중 농산물 수출 구조를 보면 2013-2019년 중국의 대한(對韓) 농산물 수출은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곡물(HS1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HS12),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식품 공업에서 생기는 잔재물과 웨이스트(waste), 조제 사료(HS23) 등이 주요 분류였다. 한국의 대중국 수출의 주요 분류는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등이다.

한·중 농산물 무역의 경쟁성을 분석한 결과 16개 농산물 품목 가운데 중국 농산물의 식용의 채소·뿌리·괴경(塊莖)(HS07), 락(lac), 검·수지·그 밖의 식물성 수액과 추출물(extract)(HS13), 식물성 편조물(編組物)용 재료와 다른 류로 분류되지 않은 식물성 생산품(HS14),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등이 경쟁 가능 품목이다. 반면 곡물(HS10), 채유(採油)에 적합한 종자와 과실, 각종 종자와 과실, 공업용·의약용 식물, 짚과 사료용 식물(HS12),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코코아와 그 조제품(HS18),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음료·주류·식초(HS22) 등은 상대적으로 경쟁 불가능 품목이다. 한국산 농산물은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HS24) 품목 외에는 경쟁 불가능 품목이다. 7년간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은 대부분 떨어지는 추세다. 중국 농산물의 경쟁력이 낮아진 것은 농업투자 부족, 농산물 생산 방식 낙후, 농산물 표준화 저조, 농산물 관세 과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또 중국산 농산물의 경쟁력 변동 폭이 컸다. 반면 한국산 농산물은 경쟁력이 약하고 변동이 적다. 양국의 생산 방식이 농업정책과 다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중국 도시경제가 빠르게 발전함에 따라 자원의 손실이 비교적 심각하다. 반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면 한국산 농산물은 수출경쟁력이 약해 농산업에 많은 생산수당을 주고, 농가 소득문제와 식량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무역장벽을 구축한다. 이 때문에 한국산 농산물 국제경쟁력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

한·중 양국 간 16개 농산물 품목 안에 식용의 과실과 견과류, 감귤류・멜론의 껍질(HS08), 당류(糖類)와 설탕 과자(HS17), 코코아와 그 조제품(HS18), 곡물・고운 가루・전분・밀크의 조제품과 베이커리 제품(HS19), 채소・과실・견과류나 식물의 그 밖의 부분의 조제품(HS20), 각종 조제 식료품(HS21), 음료・주류・식초(HS22), 담배와 제조한 담배 대용물(HS24) 등 8개 품목은 무역 보완성이 있다. 또 중국의 한국 수입 의존도보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아져 한·중 농산물 무역의 보완성이 점차 높아지는 추세다.

한·중 농산물 무역 활성화를 위한 한국과 중국의 대응은 두 가지 차원에서 제시됐다. 국제경쟁력이 높은 농산물에 대한 지원, 농산물의 고부가가치화, 농민의 비농업 소득 증대, 한·중 양국의 농업 합작 촉진, 한국 시장의 수요 파악, 농산물 수출 상품 구조 개편, 농산물 무역에 대한 정부의 지지 강화, 초급 농산물 품질의 관리 강화, 한·중 정부 간의 교류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국과 중국 경제의 지속적 발전은 농산물 무역 국제 경쟁력과 협력이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농업은 우리의 먹거리 산업으로 양 국가가 경쟁 관계에서만 문제를 제기할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을 하면서 발전하는 것이 더욱 이상적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농산물의 국제 경쟁력 및 보완성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HS 분류상의 이견이나 활성화 방안에서 미흡한 점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한계는 후속 연구에서 보완하고자 한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참고문헌

<국내문헌>

김송호, 「한중 FTA 과정 중 농업무역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목포대학교 대학원, 2009.

류문붕, 「한중 농산물 산업내무역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명지대학교 대학원, 2014.

류승범, 「한국과 중국의 농산물 무역 증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5.

박도준, 「自由貿易協定의 經濟的 效果와 商品貿易 分野 協商戰略에 관한 硏究」, 국내박사학위논문 東國大學校, 2007.

이경수, 「한· EU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과 정책적 대응방안」, 정책연구 05-09,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5, p.67.

이상진, 김형철, 「한중 FTA 체결과 농산물 수입변화에 대한 고찰」, 관세학회지, 2016, pp.99-116.

이정준, 「한-중 FTA 체결이 국내 농산물 수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중국 의 대 한국 농산물에 대한 현시비교우위지수를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2017.

유천천, 「한-중 FTA와 한-중 농산물교역」, 국내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대학원, 2018.

왕아정, 「한·중 FTA가 한국 농산물 무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9.

윤형호, 「한.중농산물교역구조의 변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조선대학교, 2010.

주흠, 「한·중 농산물 무역현황과 무역확대방안」, 국내석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일반대학원 대학원, 2013.

주전빈, 「한-중FTA 체결이 양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부대학교 인문상업 대학원석사학위 논문, 2016, p.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최아림, 「중국의 한국 농산물 수출 무역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3.
최현주, 「한-호주 FTA 체결에 따른 상호 간 산업경쟁력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4.
풍언걸, 「한·중 농산물 무역의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우석대학교 대학원, 2010.
한설매, 「한·중 FTA 체결이 농산물 교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3.
한곤, 「한·중 농업구조 및 무역환경의 변화에 따른 한국농업의 대응전략」, 국내석사학위논문 순천대학교 대학원, 2013.
학흔, 「한국과 중국 농산물의 무역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14.
학성룡, 「한· 중 농산물 무역구조와 경쟁력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경상대학교 대학원, 2014.
향몽림, 「일대일로 정책이 중국-아세안 농산물무역보완성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국내석사학위논문 상명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李瑋, 「중국 1차 산품의 대한국 수출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한-중FTA 활용을 중심으로)」, 국내석사학위논문 제주대학교 대학원, 2019.
王虹, 「한국과 중국 농산물 무역활성화에 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대학원, 2013.

<국외문헌>

張金昌, 「波特的國家競爭优勢理論剖析」, 中國工業經濟, 2001, pp.53-58.
朴恩喆, 喬忠, 安玉發, 「中韓農產品貿易合作現狀及前景」, 世界農業, 2003.
金鈴, 「韓國農產品進口市場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浙江大學, 2006.
章輝, 「關于中韓農產品貿易爭端的分析及啓示」, 商業時代, 2009, pp.33-34.
阮氏秋江, 「中越農產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湖南大學, 2009.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元雯, 「中國對韓農產品出口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0.

李梨梨,「中韓水產品貿易的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沈陽理工大學, 2010.

王莉, 田國强,「中韓農產品貿易現狀及互補性分析」, 世界農業, 2012, pp.47-51.

張婧, 「中韓水產品貿易的互補性与競爭性分析」, 世界農業, 2012, pp.54-56.

鄧莹, 「中韓産業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首都經濟貿易大學, 2012.

白懿鱗, 「中韓農產品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哈爾濱師范大學, 2013.

崔明旭, 「關于中韓農產品貿易問題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吉林大學, 2013.

山世英, 「中韓貿易的互補性与競爭性分析」, 中國商論, 2013, pp.129-130.

晏 琼, 「中國和荷蘭貿易競爭性与互補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華中師范大學, 2013.

王晶明, 「中印農產品貿易互補性与競爭性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遼宁大學, 2013.

郭界秀, 「比較优勢理論研究新進展」, 國際貿易問題, 2013, p.158.

龔志超, 「中國-東盟農產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中國碩士學位論文 云南財經大學, 2014.

王元彬, 鄭學党,「中韓農產品貿易增長特質及影響因素研究」, 國際貿易問題, 2014, pp.88-98.

楊歡慶, 「中韓FTA對兩國農產品貿易影響及對策」, 中國碩士學位論文 東北財經大學, 2014, p.34.

呂薇薇, 「泰中農產品貿易互補特征与對策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广西師范大學, 2015.

錢莹, 「農產品質量安全管理路徑探討」, 時代農机, 2016, pp.6-7.

李相洁, 「中國農產品對韓國出口貿易研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河北大學, 2016.

張溪, 厲英珍, 「中韓農產品出口競爭性与互補性研究」, 現代商貿工業, 2016, pp.48-50.

金美麗, 楊天, 李爽, 「中韓農產品貿易的制約因素及對策」, 對外經貿, 2016,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pp.21-22.

劉二眞, 「中韓自貿區建立對中國農產品出口貿易的影響硏究」, 中國碩士學位論文 河南工業大學, 2017.

郝曉燕, 韓一軍, 姜楠, 「中韓農產品貿易互競互補性硏究」, 世界農業, 2017, pp.38-45.

于牧雁,「美國農產品貿易政策對中國的影響与啓示」, 農業經濟, 2018, pp.101-103.

朱華全, 「國際貿易理論的發展及其階段划分」, 納稅, 2019, p.255.

喻翠玲,「國際貿易理論演變及其對農業貿易治理的啓示」, 新疆財經大學學報, 2019, p.6.

周奕辰, 「貿易保護背后的國際貿易理論」, 現代商業, 2019, pp.64-65.

朱華全, 「國際貿易理論的發展及其階段划分」, 納稅, 2019, p.225.

李金鍇, 陳珏穎, 劉合光, 「中美農產品貿易的比較优勢分析」, 中國農業科技導報, 2019, pp.1-8.

彭瑞娟, 「經濟全球化下我國農產品國際貿易發展路徑」, 全國流通經濟, 2019, pp.19-20.

CHIEWNAWIN SUWANNEE, 「泰中農產品貿易競爭性与互補性分析」, 中國碩士學位論文 吉林大學, 2020.

劉佳, 「全球經濟新形勢下國際貿易理論及現實探索」, 時代經貿, 2020, pp.21-22.

Shiro Armstrong, 「Measuring Trade and Trade Potential: A Survey」, SSRN Electric Joumal, 2011, pp.1-15.

Wen, Simei, Jing Zheng, Xiaoli Liu, 「An Analysis on China's Agricultural Bilateral Trade Costs? 1995-2007」, China Agricultural Economic Review, 2013, pp.360-372.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웹사이트>

농수산물유통공사 www.kati.net

한국무역협회 www.kita.net

한국농촌경제연구원 www.krei.re.kr

통계청 www.kostat.go.kr

국회도서관 www.nanet.go.kr

산업연구원 www.istans.or.kr

中國農業部 www.gov.cn

中國農業情報網 www.agri.gov.cn/

中國商務部 www.mofcom.gov.cn

中國經濟網 www.ce.cn

産業論壇 www.troagri.com.cn

UN COMTRADE www.comtrade.un.or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bstract

A study on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Complementarity of South Korean and Chinese Agricultural Products

Hong-Bo Shu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OF BUSINESS ADMINSTR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e world economy showed a trend toward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long with globalization. Economic ties between countries and regions have become increasingly close, and each region has set up regional economic integration agencies to continue developing its own economy.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countries that to some extent reflect the color of trade protectionism are also bound to be affected to no small extent. Against this backdrop, trade between countries, while complementing each other, also has a strong competitive relationship. This article analyzes the competition and complementarity of agricultural trade between two Asian countries, South Korea and China.

South Korea and China are geographically and culturally close and have maintained close political, economic and diplomatic relations throughout the ages. However, after the Second World War, exchanges between the two countries were interrupted for more than 40 years. In 1992, with the joint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efforts of the governments and people of both countries, South Korea-China economic cooperation developed rapidly. Now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s growing rapidly in all fields, including industrial and agricultural products, and not only economic exchanges but also cultural exchanges are increasing. The two countries have become important partners. The political and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re also getting closer.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South Korea-China relations developed into a 21st century partnership in 1998, a comprehensive partnership in 2003, and a strategic partnership from 2008 to the present.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has gradually increased, and South Korea is now China's third largest trading partner, second largest import partner and third largest export market. At the same time, China is already the largest trading country and the largest investment recipient of South Korea. After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with the development of economic and trade cooper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by analyzing the trade balance between the two countries, South Korea has achieved a surplus in the trade of all and China in the trade of agricultural products. China is the world's largest producer and consumer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one of the major exporters of agricultural products.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in South Korea and China is directly related to the income of farmers and therefore has a great social and economic impact.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increased from $1.02 billion in 1992 to $1.37 billion in 1997, and in 2003 the two countries exceeded $2 billion in agricultural products for the first time, reaching $2.78 billion. From 1992 to 2019, agricultural trade between the two countries increased 5.3 times from $1.02 billion to $5.43 billion.

Nearly three-fourths of South Korea's land area is mountainous, and agriculture is still run by family-run small farmers. The phenomenon of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agricultural abandonment, uneven urban-rural development, and widening income disparity have become stumbling blocks to agricultural and rural development. With the continuous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China's agricultural productivity level, th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al products is also increasing, and agricultural products are beginning to have comparative advantages and certain status in the world market. To a certain extent, the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has solved the problems of agriculture, rural areas and farmers, and played an important role in solving the employment of rural labor, promoting the increase of farmers and improving the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With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trade, countries use technical trade barriers or non-technical trade barriers to protect their agricultural products, so the problems of agricultural trade in the international agricultural market are constantly emerging.

In this context, South Korea and China have many similarities in terms of geographical proximity, Confucian circle culture, friendly atmosphere, food habits and consumption habits, and have complemented each other in the agricultural field. China's abundant resources, huge investment market, and cheap labor have greatly improved the agricultural environment,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resource utilization in both countries through South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It is expected that the economic interdependence of the two countries will contribute to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both economies.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further promote agricultural trade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o study agricultural trade promotion programs urgently.

Because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there are cultural similarities, especially the food culture and consumption concepts are very similar. As a result, they play a mutually complementary role in agricultural production. In addition, the two sides also have strong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complementarity in terms of labor, resources, and industrial structure. Currently, South Korean agriculture is modernizing in many aspects, and the level of research and national support is at the level of developed countries. In the case of China, for example, the vast land and mild climate allow for mass production and competitive prices. Therefore, enhanced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China in the field of agriculture can greatly improve the productivity and competitiveness of agriculture in both countries. However, trade fric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will also increase due to insufficient agricultural resources, dependence on imports for most agricultural products, and trade protection policies in terms of imports. South Korea and China are expanding economic exchanges not only in trade, technical cooperation, and cultural exchanges, but also in several fields. As a result, the exchange of people and goods is becoming increasingly active, and various economic exchanges and economic cooperation are proceeding smoothly. However, compared to the rapidly growing South Korea-China trade relations, the growth rate of trade in agricultural products is relatively slow. Considering this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activate the South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and competition and perfection of South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and to propose countermeasures to promote South Korea-China agricultural trade.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